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바로 서도록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게 하시고 세상이 따라오도록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빛이 발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1월 2일 (토) 제 1808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 발행인 칼럼 ●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2021년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밝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힘겨움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다. 미국을 비롯 여러 나라에서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코로나19의 어두움은 짙기만 하다. 출발하는 현실의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말 것은 모든 것이 시작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작보다 더 중요한 나중도 있다. 시작의 미약함만 바라보면 안 된다. 미약함 속에 깃든 나중의 창대함을 희망하며 2021년을 출발하자. 새로운 희망이 없다면 어찌 새해를 새해라고 부르겠는가. 새해가 없이 긴 겨울을 펼쳐낼 봄도 오지 않을 것이고 녹음(綠陰)으로 우거질 여름도 없을 것이다. 미약한 출발이라고 새해의 첫 걸음을 스스로 무시하지 말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시작은 초라하기 짝이 없으셨다. 예수님의 처음은 사람들의 냉대로 가득했다.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편히 누워 있을 곳조차 없으셨다. 그는 온 세상의 주인이셨고 왕이셨고 빛이셨으나 그를 알아보지 못한 어두움의 사람들은 환영 대신 헤롯 같은 이가 보여준 위협으로 맞이하였다. 그 어려운 시작은 더 참담한 죽음으로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었다. 부활하시었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 중에 승천하시는 심히 찬란한 나중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미약한 시작 속에 심히 찬란한 나중을 본 자는 극히 소수였다.

예수님의 시작은 사실, 죽겠다는 시작이었다. 죽음을 수용한 시작은 죽음을 극복한 나중을 만든다. 올해의 시작을 어떻게든 살겠다고 시작하면 무서워하다가, 타협하다가 한해를 보내기 쉽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시작하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으리라. 어떤 도전도 유혹도 넉넉히 이기리라. 죽음을 수용한 시작은 미미하고 위험한 것 같지만 가장 강하고 가장 풍성한 나중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하다.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의 “거듭남”은 구원의 시작이다. 그렇지만 미미하게 여겨지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누릴 창대한 축복의 시작에 불과하다. 거듭남의 여정은 성화를 거쳐 영화에 이른다. 거듭남이 소중하지만 거듭남으로 구원을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없다. 구원의 광대함을 거듭남이 이미 담고 있다. 그러나 구원의 광대한 나중을 보는 신령한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길목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돌부리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들어 스스로에게는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초라한 것으로 곡해토록 만든다. 올해 나의 구원은 이 시작 때보다 저 끝날 때에 더 풍성하게 자리나고 열매 맺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

2015년 1월 4일은 그 해의 첫 주일이었다. 그날 아주 미약한 시작이 있었다. 필자가 섬기는 교회에서 첫 중국어예배가 시작된 것이다. 다민족 선교 이야기를 건네 들은 사람 중에 “시작은 했지만 그러다 말겠지”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리라. 그러나 매년 그 미약했던 시작이 창대함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 나가는 것을 모두가 보고 있다. 심지어는 가장 어려웠던 작년 2020년에도 더 큰 창대함을 향한 믿음과 열정은 멈추지 않았다. 물론 아직 다민족 선교의 마지막 결론에 이른 것은 아니나, 주춧돌 가능성에 대해 너무 신중하게 생각한 나머지 이루어질 다민족 선교의 창대함에 대한 비전과 믿음까지 점점 감추어 버리는 것 같았다.

2021년, 모든 것의 시작이 미약하다. 그러나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과 오메가, 시작과 나중이 되신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으신다. 우리의 출생부터 죽는 날까지 언제나 함께 계신다. 모든 일의 출발과 맺음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올해의 시작에도 올해의 나중에도 하나님은 계시다. 올해 시작의 미약함을 바라보고 암울해 하면 끝까지 함께 하시며 마침내 나중을 창대케 하실 하나님께서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신년시

길 없는 길 터시며



박상희 권사
(올림포에트리, 계관시인)

길도 없는
가시 돌밭 홀로 걸어오신 님이시여
코로나의 독화살 앞서 오신
길 터신 그 손발의 용기와 온몸 박힌 가시 승승
님의 명든 사랑
우린 차마 몰랐나이다

원수를 향해 분노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칼과 화살 대신
맞으신 님
길 터시고
품 되시고
이불 되시어
언덕마다 골짜기마다
세밀한 음성으로 타이르신
맨발의 왕이시여

2021년 험한 365일을 또 당신은
우리를 품으시고 가시렵니까
사랑스럽다 등에 두리듯 되시고
홀려내리는 상처투성이 입 맞추시며
원수의 독화살 막으시고 또 앞서 가시렵니까

당신은 가슴 가득 꽃이 되십시오
복음의 향기 온 세계 두리두리 넘치십시오
당신의 나라 당신의 가슴 빛나는
기쁨의 생명줄 더욱 빛내십시오

2021년에는 진리와 사랑
우리의 가슴에서 온 세상에 평화의 단비로
넘쳐흘러 찬란하십시오!



신년설교
조문휘 목사



신년메시지



신년특집

6-10,
11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교서적/일반서적/백스텔러/성구/성화/역사/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교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뉴저지 Tel.201)346-0030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k2000-usa.com / k2019-1@k2000.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세계선교교회는 MCUSA(Missionary Church USA) 교단에 속한 출석 인원 약 150명 정도로 올해 48주년을 맞이할 교회로서 지난해 담임목사의 사임으로 인해 새로 담임 목사님을 청빙 하고자 합니다. 성격이 온유하며 부지런하고 장년부와 EM등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 인도 할 목회자 이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

자격

- 나이 45세이상 55세이하
- 정규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 목회 경력 5년이상(부목사, 교육/행정 목사 포함)
- 본 교단 가입에 문제가 없으신 분
- 2중언어(한국어, 영어)가 가능 하신 분
- 결혼하여 가정이 있으신 분
-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유자

서류 제출: 1차

- 한/영 이력서 사진, e-mail 주소 포함)
- 가족 소개(사진 포함)와 간단한 사모의 경력 소개
- 신앙고백과 목회 비전서

서류 제출: 2차

- 학위 증명서(대학, 대학원)
- 목사 안수 증명서
- 존경하는 목사님의 추천서(2명 이상)
- 시무 교회의 주보 (3주 정도)
- 1차, 2차 서류 검사 후 최근 셀로 영상(20분 정도 MP4 File format, 1080x720p) 또는 면담과 초청 설교를 부탁드릴 수도 있습니다.

서류 제출

마감 - 2021년1월31일까지
서류 제출 방법
등기우편이나 본인이 직접 교회 사무실에 제출 (봉투에 반드시 [담임목사 청빙 서류 제출] 이라고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 제출된 서류나 영상에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장되고 반환되지 않습니다.
- 1,2차 심사 후 e-mail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 면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연락처

주 소: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ph: (213) 388-1927

강 석건 장로: (310) 713-6699, kingkang213@gmail.com



시론

예수 미니멀리스트



은희곤 목사 (뉴욕 침사료교회)

평생 시계 만드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들의 성인식 날 손수 만든 시계를 선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는 여느 시계와는 다른 특별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시침은 동(銅), 분침은 은(銀), 초침은 금(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받은 아들이 물었습니다. 시침이 가장 크니까 금으로 만들고, 가장 가늘고 작은 초침은 동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아들의 질문에 아버지는 "초침이야말로 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초를 잃는 것은 세상의 모든 시간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지." 그는 아들의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시간과 분을 아낄 수 있겠나? 세상만사 순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는 걸 명심하고 너도 이제 성인이니만큼 1초의 시간도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구나."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 새해를 시작할 때는 큰 꿈을 갖습니다. 그러다 연말이 되면 그 꿈에서 자유로운 사람과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 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졌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러나 비록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1년 동안 성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떳떳하고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꿈만 꾸지 성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꿈에 대해 늘 괴로워하고 갈등합니다.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꿈을 꾸되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인생의 목표와 비전과 꿈을 지녔더라도 항상 하나님과 교회와 역사와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렇지 못한 사람을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중학교 때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게으름도 악이구나"라는 도전을 받았습니. 그 이후 지금까지 "게으르지 말자, 이것은 악이다, 최선을 다하여 살자"고 다짐하며 살아왔고 결과에 대한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선과 악"의 분별과 차이는 "충성과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선한 자, 충성된 자의 특징은 "작은 일"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노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인생의 그릇과 지경이 넓어져 가는 성서적 축복입니다. 복은 주님이 명하시야 합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복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해당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금으로 만든 시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 큰 꿈을 꾸며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교만한 욕심"을 자주 때때로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큰 꿈은 작은 습관, 분명한 의지 등이 선행될 때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라 피네는 말합니다. "가장 바쁜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가진다.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많은 대가를 얻는다"고. 새해에는 내가 바쁘고 기쁜 일보다 주님 때문에 바쁘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에 초점 맞추는 삶, 그래서 주님이 주목하시고 관심 갖으시는 "거룩한 열망과 부담이 있는 삶"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초침을 금침으로 여기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신앙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의 마지막 자락에 떳떳하게 자유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니멀리스트"(Minimalist)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2면으로 계속)

다가올 2021년... 적어도 희망의 빛 보인다!

이코노미스트, 불확실하고 위험 크지만 통제할 수 있는 '기회의 해' 전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역습에 2020년은 인류 역사상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첫 환자가 보고된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11개월 만에 코로나19 전 세계 누적확진자수는 6000만명을 넘어섰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각국에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21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현재 진행형이다. 세계 경제는 세계 대공황 이래 가장 심한 경기 위축을 겪었다. 비즈니스 업계에 재택근무, 인원 감축, 디지털화 등 혁신의 바람이 몰아쳤다.

2021년은 이런 변화의 결과가 드러나 코로나 사태 후 위기가 아닌 변화와 기회로 삼을지를 놓고 고민해야 하는 '시험대의

미 일어났는지 목격하게 된다. 특히 서구사회가 더 크게 변한다. 코로나 유행을 거치면서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됐다. 원격근무부터 온라인 소매업에 이르기까지, 평

해'이자, 사회 불평등, 금융 불균형, 기후 변화, 핵 테러 등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 더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전환점의 해'가 될 것이다. 또 2021년은 예정됐다가 미뤄진 여러 행사들을 다시 치르는 등 올해의 반복 같은 '데자뷔의 해'도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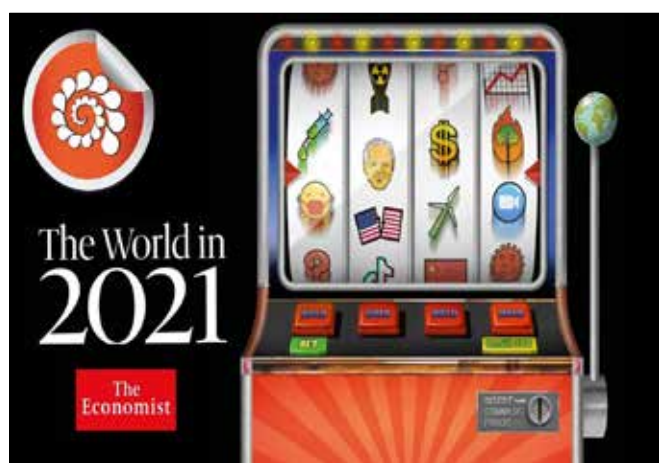
이코노미스트는 2021년이 모든 면에서 불확실하고 위험이 크지만 코로나 전 세계 대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모험의 기로에 있는 해라는 점에서 '기회의 해'가 되리라 기대한다(After the crisis, opportunity: What forces will shape the post-covid, post-Trump world?).

변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행 및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상품과 자본의 세계화는 계속되겠지만 사람의 이동은 줄어들 것이다. 가

게 할 뿐만 아니라 팬데믹의 피해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 2021년 말까지 약1억5천만 명의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에 빠질 수 있다.

한편, 세계 무역은 긴장이 감도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이뤄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중상주의는 꺾이겠지만 "관세맨(Tariff Man)" 트럼프 대통령이 퇴장한다 해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중국산 수입품의 3분의 2에 부과한 관세는 물론이고, 중국 IT기업에 대한 제재도 이어질 것이다.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돌로 나뉜 디지털 세계와 글로벌 부품 공급망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시험대의 해'

높아졌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 초에는 이런 변화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 재유행이 이어지면서 각국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데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이다. 새해에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백신을 대규모로 보급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2021년이 지나가면서 백신이 대중화될 것이고, 그제야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이

'전환점의 해'

소에 수년간에 나타났을 변화가 수개월 만에 일어났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사고, 어디서 일하는지를 짧은 시간에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창조적 파괴가 휩쓸고 간 자리의 승자는 대유행을 거치며 이익이 급증한 빅테크 기업이다. 수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디지털 전환에 투자할 많은 자금을 보유한 대기업들도 대표적 수혜자다. 반면, 코로나바이러스와 사투를 거친 대도시들은 크게

장 엄격하게 국경을 폐쇄한 나라들이 아시아에서 바이러스 전파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준다. 국경 폐쇄와 자가격리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줄어든 이후에도 상당 기간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 여행이 재개되더라도, 이민은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는 부유한 국가로 이주한 노동자들의 송금에 의존해온 가난한 나라의 전망을 어둡

더욱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만이 세계화를 분열시키는 요인은 아니다. 유럽과 인도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의약품 포함 주요 물품을 외국(중중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들은 정부가 보호해야 하는 "전략적 산업"의 범위를 더 넓히고 새롭게 정의된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세계적 추세로 만들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계 경제가 분열하고 침체할 것이다. 중국과 일부 아시아 국가가 가파른 경기회복을 달성하겠지만, 다른 지역은 상당 기간 침체를 겪으면서 경제성장의 격차가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12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Joon Mo Myung, MD, a medical professional in Flushing, NY.

Advertisement for Bethesda Dental, a dental clinic in New York, NY.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for L.A. and N.Y. offices.

Advertisement for Hisfinger Collection VOL.1 / Psalms8:3, featuring a t-shirt and a graphic design.

Advertisement for NYU Langone Health's FAMILI Study,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into diet, environment, and disease.

새해를 맞아 우리 모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자.

I.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정체성에 따라 살아간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때문에 피로해도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상을 차린다. 우리도 신앙 안에서 빛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신한다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기가 더 쉬워진다.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은 어떠실까?

본문에서 볼 수 있다.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다. 완전한 빛의 성품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다.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부족하고 세상의 악과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어정쩡하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한다. 오늘 아침이 어려워도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를 보면 그 영혼이 소망의 말씀을 기쁘게 받으며 환하게 빛이 밝혀지는 것을 본다.

빛은 오히려 주위가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이 나지 않는가? 삶의 위기를 느낄 때 우리는 심령의 빛이 번쩍이며 정신을 차리게 된다. 이 팬데믹 시기에도 오히려 믿음의 빛을 더욱 강렬하게 할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시고 어두움을 이기도록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II. 빛의 자녀가 된 신분을 알았다면 그 다음은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요구된다.

어둠의 자식과 빛의 자녀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행위가 다르다. 3절부터 보면 어둠에 속한 사람의 행위를 말한다. 더러운 것, 탐욕, 나쁜 말, 음행, 우상숭배 등이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경고한다. 우리는 과거 최악의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어두움의 일을 은밀히 즐기지 않을 뿐

더러 그런 일을 하면 부끄럽다. 대신 빛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방식들을 받았다. 앞장에 보편 더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오래 내지 말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라 등. 이렇게 빛의 자녀답게 살면 빛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다.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3가지를 말한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이 세 가지의 열매를 다 맺어야 한다.

1. 우리는 먼저, 모든 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여기 '착함'이란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뛰어난 도덕적인 행위, 관



조문휘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은누리장로교회)

용, 희생적인 행동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다든지 철길에 뛰어든 아이를 구하는 등 장기기증을 해서 사람을 구하는 지 애써 모든 돈을 선한 일에 바친 것을 가리켜 선행이라고 한다. 여기 '착함'이 바로 그런 행동이다.

살전5:15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빛의 자녀라면 이런 착한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이런 착함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적은 일부도 훈련돼야 한다. 평소 애 헌금도 않고 인색한 자가 복권에 당첨되면 예배당을 짓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권 당첨된 것 못 봤고, 그렇게 해서 복권이 당첨돼도 정말 그것을 그렇게 쓸지 심히 의심스럽다. 하나님도 그런 헌금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 "나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하면서 평소 애 봉사하지 않는다. 납세의 의무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몸을 바치는가? 어떻게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

는가? "나는 가정을 사랑하므로 그들을 위해 목숨 바칠 각오가 되었다"고 하면서 쓰레기 한번 치우지 않고, 휴일에 혼자 놀러간다. 자식공부에 관심도 없고 야단만 친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일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불의한 일에 불의한 자는 큰일에도 불의하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먼저 모든 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적은 일에서부터 착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

2.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여기 '의로움'이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 착함이 이기심 없이 희생하고 주는 것이라

하면 의로움이란 이기심 없이 바로 사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자라면 우리는 말하는 대로 행동할 것이다. 정말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면 구태여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르고 신앙과 삶이 다르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요, 의로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문제다.

R.C. Sproul 목사가 쓴 글에 한 유대소년의 이야기가 있다. 그 소년을 사업가로서 성공한 그 아버지가 우상적인 존재였다. 그 아버지는 언제나 가족에게 유대교 신앙을 강조했고 집 근처 회당에 열심히 다녔으므로 그도 아버지를 따라 늘 회당에 나가서 유대교인의 삶을 살았다. 십대가 되었을 때 그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독일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 그곳에는 회당이 없고 그 대신에 루터교 교회가 있어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가족을 모아놓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유대교 신앙을 버리고 루터교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 소년은 이상해서 왜 그러느냐고 물

었다. 유대교를 강조하고 회당을 다닌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사업상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때 그 아들은 몹시 실망했다.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받고 분노와 약감을 갖게 됐다. 후에 그는 독일을 떠나 영국에서 공부했다. 많이 공부하여 마침내 자기 나름대로의 사상을 가지고 책을 썼다. 새로운 세계관을 주는, 후에 공산주의운동의 기초가 되는 책이었다. 그가 바로 칼 마르크스. 20세기의 왜곡된 인류의 역사는 아들의 가치관을 여지없이 왜곡시켜 버린 한 아버지의 잘못된 삶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다.

우리는 빛의 자녀.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우리 이웃, 우리의 동료들은 우리를 본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의롭

게 보여야 하지 않겠나? 말로만 아니라 그들이 볼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같고, 우리의 신앙과 행위가 같고, 우리의 삶과 인격이 같아야 하지 않겠나?

III.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라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라고 했다.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빛 되신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 없는 일에 대해서 말씀한다. 11, 12절을 보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신/년/설/교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에베소서 5장 8-14절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어둠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때로 어둠의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 이것을 잘 점검해보고 내가 지금 하는 말, 나의 삶, 행동이 빛의 열매인지, 어둠의 열매인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

바울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어둠의 일이란 어떤 것인가? 4:25 이하에 나오는, 거짓된 것, 분을 내는 것, 도적질하는 것, 더러운 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다. 모든 악의다. 또 5:3-5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이 어둠의 일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바로 이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다. 더 나아가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했다. 적극적으로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말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둠의 일들을 책망

할 것인가? 첫째로, 간접적인 방법이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사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속이며 살더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악하게 말해도 우리는 선하게 말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도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부패해도 우리는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욕심 따라 살아도 우리는 경건하게 사는 것이다. 세상이 다 성적으로 타락해도 우리는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책망을 받는다. 우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마5:16).

둘째로, 우리는 직접적인 방법으로도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것이다. 때로는 침묵이 어둠을 더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때론 우리가 입을 열어 잘못된 것을 말해야 한다. 자녀들이 잘못할 때 지적해주고, 어둠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책망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사회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야 한다. 물론 우리가 말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려줌으로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다. 이것이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지 않고 어둠의 일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벌써 우리가 빛으로서의 힘을 잃은 것이다. 우리가 빛을 드러내기는커녕 어둠이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빛이기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도날드 그레이하운드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이 빛된 것은 태양과 같다. 그러나 우리가 빛된 것은 달과 같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낸다. 그러나 달은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낸다.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어둠이 있었으나 믿음으로 주 안에서 빛이 됐다. 그러므로 이 빛을 잘 드러내려면 태양빛과 같은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 주님의 생명의 빛을 자꾸 받아야 한다. 말씀과 기도요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은 주님의 생명 빛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속에 빛이 가득하도록 해야 한다. (11면으로 계속)

20
NEW YEAR
2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 마태복음 5:16

발행인 김성국 목사의 직원 일동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길이 끝나는 곳에서 생명의 길 만들고...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 이기성 목사



정호승 시인의 '길이 되는 사람'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사람이 끝난 곳에서도/ 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저는 이 시 가운데서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구절과 '사람이 끝난 곳에서도 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구절이 참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며(요17:18),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눅4:16-19)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길이 끝나는 그 곳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사람이 끝난 곳에서도 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을지라도 끝까지 '나는 사랑할거야' 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사랑하기를 다하는 사람, 사랑이 메달라 가는 이 시대에 너무도 그림자 없습니까?

우리는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서로를 바이러스 대하듯이 경계하며, 스스로 마음의 벽을 쌓고 자신의 생존만을 우선 과제로 삼고 달려왔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한 마디의 나무랄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2021년이라는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시간, 다른 말로 현재(present)는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이라는 새해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한번 살아보라는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021년 새해에는 길이 끝나는 곳에서 생명의 길을 만들고, 사랑이 끝난 곳에서 사랑의 씨를 피우고, 기쁨이 메마른 곳에서 웃음의 꽃을 피우게 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퍼뜨려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까워지게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 자신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의 재활성화 (Revitalization)를 이루라!”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 총회장 이성권 목사 (신시내터 능력침례교회)



할렐루야! 2021년 새해를 맞이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 역병으로 많이 힘들었지요? 새해에는 낙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사31:15). 이 세계적인 팬데믹도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잠16:4)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네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내리겠다(렘14:21) 하셨는데, “내가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23) 하셨습니다.

이 땅의 고난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에도 매일 회개하며 기도해왔지만, 올해도 여전히 이 땅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7:13-14).

코로나 백신들이 나와서 좋아하지만 역병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혼의 죄범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병든 세상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직도 멈추지 않고,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은 마지막 때의 징조인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보라 날이 이르면...”(눅23:28-29)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우리와 다음세대, 그리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울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라고 봅니다. 빛과 어둠의 치열한 영적 전쟁 상황이지만 움츠러 들지 마시고 무너진 제단을 새롭게 수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재활성화(Revitalization)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힘들고 어려워서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실 하나님께 새 일을 기대하며”(사 43:19),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역사에 남을 만한 2021 복된 새해가 되시고, 임마누엘의 은총과 보호하심이 계속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파워미션!

leesungkwon@gmail.com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길

뉴욕목사회 회장 김진화 목사 (미래비전교회)



하나님의 소식의 중심, 교회의 소식의 중심인 복음의 기록언론으로 희망과 복음을 전해 주시고 항상 바로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소식을 전하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사회는 생활과 물질은 풍족해졌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교회 모이기를 기피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영적 기근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했던 북왕국 여로보암 왕 때와 같이 말씀의 기근, 영적 기근의 시대 속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과 혼동의 정국이었고, 대립과 갈등의 문제와 함께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아래 두려움과 공포의 시대 아래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성도들이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게 되는 사태에 살았습니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진리가 불의로 보이고, 불의가 진리인 것 같은 상황 속에 인본주의가 난립하였습니다. 청교도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어떤 인위적인 노력도 부정하며 복음의 순수함을 회복하기를 바랐습니다.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세대를 신본주의로 회복시키는데 기여하고 앞장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구원과 복음전파의 사명이 실천되도록 예언자적 사역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로 나를 중심으로 한 테두리 안에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를 목표로 살았다고 하면 새해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거룩함이 개인이나 교회에 충만할 때에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게 되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요로운 한 해를 얻을 것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 12:1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ife9191@gmail.com

침체에서 회복으로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임성진 박사



세상의 역사는 희비의 쌍곡선이라고 하는데 2020년은 어려움으로만 이어진 단곡선의 한 해였다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해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역사의 바퀴를 감히 거스릴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새삼 절감합니다. 힘든 한 해가 지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2020년은 걱정과 근심 그리고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격변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신앙생활까지 제한하였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시민이기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지만 그 우선순위가 뒤차되어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거대담론이 강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이제는 코로나의 공포를 뛰어 넘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성실한 시민으로서 신앙생활에 대하여 말씀으로 정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원은 심령을 주사 나를 볼드소서”(시51:11-12). 빛세바와의 별모도 인하여 침상이 눈물로 피워지고 뼈가 꺾이는 것 같은 고통의 기간을 지난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회복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감격하여 찬양하며 성령충만하여 바지가 벗겨져도 개의치 않고 춤을 추며 찬양하던 그 때와 같이 회복되기를 사모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즐거움이 너무 감격스러워 주체할 수 없는 상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찬양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쏟아져 나오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나는 진정으로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생명의 씨알로 살아가는 해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이상명 박사



2021년 대망의 신축년 새해가 동터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 하나님의 은총이 미주크리스천신문 독자들과 온누리에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팬데믹이 가져온 혼란과 상실은 2020년 한해 우리 일상 곳곳에 크고 작은 내상을 입혔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효능 좋은 백신 개발로 이제껏 기세등등했던 팬데믹을 이겨내고 우리 내면과 사회 곳곳에 드리운 불안 공포를 몰아내야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라이프스타일, 소비, 가치관, 욕망, 영성에 큰 변화가 일면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데믹의 영향이 돌이킬 수 없는 인류사적 재앙이 될지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의 기회가 될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 희망은 세상 질서와 체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과 사회와 우주의 궁극적 희망은 혼돈에서 질서를, 죽음에서 생명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혼란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생명의 씨알로 살아가라 명하십니다. 우리는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겨자씨와도 같습니다. 겨자는 1-2년생 초본식물로서 풀이 지나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겨자는 1-2미터밖에 자라지 않는 풀이지만, 줄기가 목질화 되어 나무처럼 자라 새들이 둥지 틀 정도로 자기가 단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겨자나무는 개체로 존재하기보다 군집을 이루어 군생할 때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합니다. 우리 각자는 겨자와 같이 아주 미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나라 비전으로 서로 연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로운 생명과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십니다.

우리는 많은 도전과 위기 속에서 2021년을 맞이합니다. 그 어느 시기보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새해에는 팬데믹이 활귀고 간 깊은 생채기를 싸매고 치우쳐 우리 교회와 사회를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함없는 사랑의 환대받은 우리 교회가 세상을 그처럼 환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일들이 새해에는 교계와 사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미주크리스천신문 독자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등대로 빛 발하는 한 해되길

뉴저지한인목사회 회장 이의철 목사 (뉴저지 교회)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희망찬 새해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지냈습니다. 그 여파로 지금도 경제적 불황과 경기침체로 고통을 당하는 층과 어두운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성과 회개의 시간을 가졌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선택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서 새로운 한 해 그 첫 발걸음을 힘차게 출발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죄악들을 다 벗어 버리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새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삽시다.

새해에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절망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굶주린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와 섬김과 나눔을 실천합시다.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기도운동, 말씀운동, 사랑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서로 힘을 합하고 연합하여 함께 일어나 세상의 등대로서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사역과 모든 일 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bbainfo@gmail.com

예배회복에 최선 다하는 해로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호6:1). 2021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로운 한 해, 역사의 장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새해를 허락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모든 임원 및 후원회원과 각국의 지부장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750만 해외 동포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혼란했던 한 해였고, 특별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8천만 명이 가까운 확진자와 170만 명의 사망자를 내었으며, 계속해서 확산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K-방역을 자랑했던 우리나라도 3차

대유행의 시기를 맞았으며, 코로나19의 위기는 이제 한 해를 넘겨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큰 근심과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때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도 없고, 더 나아가 서로 거리두기를 해야만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도 많고 불특정다수가 확진이 되는 때이기에 부모 형제도 만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백신(Vaccine)이 개발되었다는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기는 하지만 아직은 새벽의 여명과 같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모쪼록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온전하게 소멸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새해는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과 치유함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련의 사태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하루하루를 여시는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며, 치셨으나 싸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름다운 회복의 열매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새해에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지난 해는 방역이라는 이유로 대면예배가 중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교회의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과 무분별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한국교회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온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제는 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정부가 만들어준 '비대면예배'라는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라는 말은 단순히 한 해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 이루시려는 놀라운 계획과 비밀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병든 영혼의 치유와 가난이나 질병, 탐욕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갈등과 분쟁을 없애고 나아가 전쟁이 없는 평화로 온 세계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모든 가족들은 힘들고 어려워 지쳐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750만 해외 동포들을 위해 미약하지만 작은 힘과 용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새해 되기를 희망합니다.



신/년/메/시/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새해”

뉴저지교협회장 이정환 목사(뉴저지 순복음 교회)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에게 어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어떠한 자세와 삶의 태도를 가져야 어려운 시대와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냐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일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부자라 할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동행 하는 사람이 극악무도한 강도요 사기꾼이라면 나의 부유함은 이제 능력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0년 광야생활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리더인 모세가 죽고 난 후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모세처럼 말하고 모세처럼 행동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수1:5)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동행의 인도자이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내가 어떤 존재로 살고 어떤 목표를 세우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나와 동행하는 분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 23:1)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과 쉼 만한 물가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2021년을 맞이하여 달려갈 새해는 나 자신이나 상황 혹은 환경에 집중하기보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을 깊이 묵상하며 바라보는 한해가 될 때 진정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2021년 새해에는 여호수아와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심을 고백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odchurch@gmail.com

은혜 안에서 회복 발전되길

케네디교협회장 황원조 목사 (비전한국교회)



새해를 맞이하여 미주크리스천신문 독자들에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연대를 정하셔서(행17:26), 우리가 365일마다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과거는 역사(History)이고, 미래는 신비(Mystery)입니다.

지나해는 코비드로 인해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바벨론 포로가 된 교회’(The Babylonian Captivity of the Church) 라는 글에서 로마교회의 잘못된 신학과 제도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포로로 잡혀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에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국가, 사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속주의, 상대주의, 물량주의에 사로잡힌 바벨론 포로생활을 해오지 않았나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새해부터는 모든 국가, 사회, 교회, 가정, 개인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시 새로워져서 회복되고 발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hjn.rev@hotmail.com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 기대

C&MA 한인총회 감독 정재호 목사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들 모두에게 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작년 한해는 참으로 쉽지 않은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렇게 다시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열심으로 그리고 아름답게 작년 한해를 경주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1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2021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미주크리스천 독자 여러분들과 가정들 위에 더욱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올 2021년에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립보서4:6)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우리들을 통하여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합니다. 더욱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unniechung@yahoo.com



불확실을 확실로 바꾸는 예수 제자

OC교협회장 박상목 목사 (가주 주님의교회)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년과 같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나누어야 할 텐데 금년 한 해가 어떻게 될지 몰라 우울하고도 답답합니다.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John Kenneth Galbraith, 1908-2006)가 지적한 것처럼 ‘불확실성의 시대’(The Age of Uncertainty)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빈곤사회에서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다”는 것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열두 해를 혈투증으로 고통함을 당하던 여인을 고치신 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붙었던 일곱 귀신을 쫓아내신 분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도 다시 살리신 분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미생물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만 아니라 미래와 영원까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코비드-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맞이하게 될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주이시며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담대하십시오. 근심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불확실을 확실로 바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16:33).

하나님께 진정한 소망 두어야 할 때

미주성서화운동본부 공동대표 진유철 목사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도(창1:2) 순식간에 질서와 충만과 밝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순종할 때 무에서 유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 듯 모두가 절망한 곳에서 소망으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치 지상에서 하늘로 쏘아 올리는 우주선이 나 로케트처럼 코로나를 잠재울 백신과 치료제처럼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바꾸어놓는 능력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그냥 큰 물 웅덩이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바다들과 각각각색의 신비로운 물고기들을 풍성하게 만드셨습니다. 꽃들도 한 가지 색깔로 대충 만들지 않으시고, 수많은 색깔과 향기와 종류가 다른 꽃들을 시즌마다 새롭게 주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서도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숨씨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풍성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깊은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며 다른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럴 때 요나 개인의 인생과 요나가 복음을 증거 했던 악독한 니느웨 성읍에까지 놀라운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진정한 소망을 두어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참되게 믿는다면, 2021년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겸손이 2021년 새해의 키워드였다면”

연합감리교회한인총회장 류재덕 목사 (벨리연합감리교회)



많은 분들이 새해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는 새해가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희망을 새해의 키워드로 삼고 싶어 한다는 것이지요. 바이러스 백신이 나왔고 접종이 시작되었기에 더욱 그런 희망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더구나 팬데믹으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크기에 새해에는 희망을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대와 달리, 백신 보급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렘29:11). 하나님은 분명 예레미야를 통해 희망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희망은 ‘선부른 희망’, ‘값싼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대가를 분명히 지불해야 비로소 희망이 희망된다고 합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칠십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렘25:11).

그래서 새해의 키워드는 ‘겸손’이고, 기대하는 것은 겸손한 죄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드실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참된 희망은 백성이나, 팬데믹을 피하려고만 하는 태도에선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임을 고백한다면, 팬데믹을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겪으라고 하면 겪으면 될 것입니다. 새해는 주님의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길은 보입니까?’ ‘아닙니다! 단지 희망해볼 뿐입니다!’

뉴욕교협회장 문석오 목사 (뉴욕효신장로교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늘 기대와 설렘으로 들뜨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개되지 않은 날들의 ‘새로운 펼침’이란 종종 ‘희망의 찬가’를 부르기를 소원합니다만... 그러나 21세기에 이미 들어선 인류의 미래를 향한 전망(展望)은 그야말로 ‘알 수 없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총체적인 어두움’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할 정도가 되었으니, 어찌 ‘희망의 찬가’만을 부를 수 있을까요? 인류학이나 사회학, 또는 인간의 문화와 생태환경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웬만한 식자(識者)이기만 해도, 오늘날총체적인 파국(破局)을 향해 달려가는 지구적인 위기(global crisis)를 과연 누가 모르는 체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세상은 심각한 중병(重病)으로 사망선고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경이로운 파야란 축복의 별을 제쳐두고 세계 각국들이 가공할만한 과학을 내세워 천문학적인 노력으로 우주 어딘가에 새로운 세계를 향한 가설(假說)을 앞세워 상상의 날개를 펴고 기막힌 우주탐사를 하기에 이르렀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종말사상을 자세히 언급하지 않더라도 오늘날의 문명을 일으킨 과학발전의 논리 속에 숨겨진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이 욕망을 부채질하는 유행의 대량생산과 무분별한 도전, 향락을 부추기는 타락한 문화의 극대화 그리고 인제 점차 소멸되다시피 ‘작아만 가는 영혼의 잠식’ 속에서, 이기적인 경제중심의 논리만이 판을 치는 현대문명의 초라한 비극이 세상을 뒤덮어 버림으로 인간이 스스로를 평가절하 하는 비극이 되어 버린지 이미 긴 세월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일을 향한

희망의 열쇠는 알 수 없는 미궁으로 빠져간다는 진단은 실로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한 ‘내일, 그리고 다음세대를 위한’ 자비로운 공간의 여지없이 ‘당장 다 파헤쳐 소비해버리려는 현재적 욕망’이 현대인들의 마음에 비대해져 가는 이상, 지구자원(地球資源)에 의존해야만 하는 인류문명의 미래는 암울하다 못해 어두운 절곡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편함이라고는 조금도 견딜 수 없어 오직 편리하고 유희적(遊興的)인 이기적 만족감을 위해 첨단 과학문명이 총동원되고, 수많은 피조물들이 더불어 생존해야만 하는 생태환경이 오직 ‘인간만의 만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조작되고 왜곡되어가는 편협한 세상에서는 창조주의 그 아름다운 ‘상생(相生)을 향한 조화로운’을 찾을 길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론을 낳을 것인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 그저 우울한 내일을 예고할 뿐이지요. 끝없는 발전의 논리 속에서 만족할 줄 모르는 과도한 소비문화의 극대화로 향하는 현대인의 일상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인간 스스로가 피해자로 전락되어 진정한 휴식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제는 문명의 찌꺼기를 틈바구니에서 스스로의 숨을 옥죄는 환경의 극심한 오염과 지구 자원의 고갈(枯竭)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내일의 출구는 없음’(No Exit for Tomorrow)이라는 결론에 이르러 되었음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지구촌의 미래를 조금만 미리 앞당겨 생각하거만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현상으로서의 ‘종말을 향한 질주’는 마치 착륙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하늘을 향해 ‘더 높게, 더 빠르게’ 날아가는 비행기만을 만들어낸다는 표현이 어울릴 뿐입니다.

그런데 인류 문명 속에 깊게 자리잡은 이러한 과학적 세속주의 위기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진단하는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외적 진단은 그저 작은 지적에 불과할 것입니다. 인류문명 속에 너무나도 뿌리깊게 자리한 ‘인간중심의 세속성’과 여기서 토해내는 그 더러운 오염의 현실은 ‘지구 종말’이라는 단순한 수식어를 넘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무서운 미래를 예견하도록 우리 모두를 경고하고 있지요. ‘Covid-19’으로 명명된 바이러스의 침투와

그 위세로 결과되어진 사회적 혼란이나 육체적 고통, 심지어 죽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신성의 파괴와 그 열매’는 그동안 인류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그 얼마나 보잘 것 없고 허풍에 가득찬 것이었는지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차라리 ‘1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순한 삶의 논리로 생존이 진행되어왔더라면 그나마 인류가 이토록 어지러운 현실로 총체적인 파멸의 길을 향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뒤늦은 후회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후회를 할 시간과 여유도 없이, 지능적 세속성이 ‘정보혁명의 시대’라는 3차원을 넘어 모든 것을 네트워킹 하여 세계를 하나로 묶어대는 ‘초연결’(super-network)이라고 이름 지어진 4차 혁명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는 생명공학(bio-tech)을 뛰어넘는 AI의 출현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이제는 ‘변형된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새로운 자리매김’을 강요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니... 과연 21세기를 넘어 나타날 인류와 그 문명에 대한 예측불허는 내일을 바라보는 현대인들의 생각을 어지럽게 할 뿐이지요.

그렇습니다! 인류가 산업혁명이후로 행해진 ‘끊임없는 발전과 도약’과 더불어 ‘자유를 빙자한 이기심 축적’이라는 무서운 질주를 행하는 사이에, 희망적이어야 할 ‘인간다움의 영역’과 ‘하나님의 창조질서’는 너무나 쉽게 무시당해왔으며, 또한 자연과 함께 이해되면서 조화를 이뤄야 할 인류의 우주적 공동체성은 무관심으로 내동댕이쳐진 채...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본능적 진화라는 혼돈의 늪으로 인류의 역사를 빠져들도록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나, 이 속에서 신안인이 성경적 가치관을 고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 얼마나 고달픈 외길이었는가를 하는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판국이 되어버렸습니다.

21세기에 펼쳐진 이러한 인류역사의 과정을 잠시라도 되돌아보는 중에, 그나마 다행스럽거나 위안이라도 되는 것이 있기도 하지요: 그것은 총체적인 파멸의 길로 질주를 하면서도, 인간의 자기성취의 논리와 현대의 세속문명에 대한 보다 진지한 반성을 뒤늦게라도 하게 되었다는 것에 있지요.

(13면으로 계속)

“뉴노멀 시대,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신학적 시각에서

조진모 목사(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뉴노멀-신조어

코로나-19의 위력이 대단하다. 세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작된 변화는 지속적으로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간은 미래를 전혀 알 수 없다. 향후 변화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 방향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는 것을 불가능하다. 이런 불안감 속에서 ‘뉴노멀’이란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이겨내고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이 신조어가 생겨난 것이다.

지금까지 교회는 ‘뉴노멀’이란 단어에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전개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교회 문을 자유롭게 열 수 없고, 인터넷을 통해 영상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모임이 요구되는 교회활동이 전면 중단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다. 중추적 기능이 중단된 교회가 향후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얻고자하는 것이다.

사실 ‘뉴노멀’은 대단한 말이 아니다. 변화에 대한 대처이다. 인간의 적응능력은 대단하다. 인류역사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살아남는 길을 찾은 자들의 모습으로 가득하다. 과거에도 전염병이 창궐하여 사람들을 극심한 공포로 몰아넣었던 적이 있다. 대표적인 것은 1347년에 시작되어 5년 만에 유럽 전역에 퍼져나간 흑사병이다. 도시가 텅 비었고, 시체가 길가에 즐비했다. 전체 인구의 1/3이 사망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인문학자인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1304-1374)는 한 편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루에도 여러 번 한다. 세계 전체에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기록을 먼 날에 태어날 우리 후손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언젠가는 분명 현재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도 결국 지나갈 것이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안전한 때가 올 것이다.

바로 그것

‘노멀’이란 단어는 우리와 매우 친숙하다. 사전적인 정의는 ‘정상적인 상태 또는 표준’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뉴노멀’에 대한 논의는 현 상황이 비정상적이며 ‘올드노멀’과 분명한 구분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이뤄진다. 새롭게 펼쳐지는 시대의 상황에 잘 맞는 ‘바로 그것’을 찾아내자는 것이다.

문제는 방법이다. ‘뉴노멀’을 주창한 경제학자들은 새롭게 등장한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

는 것이 교회를 정상화 시키는 최고의 방법일까? 이미 교회를 향해 ‘뉴노멀’을 제안하며 설득하려는 시도가 있다. 우리와 익숙했던 과거의 것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한 건물에 ‘모이는 교회’에 대한 미련을 과감히 포기하고 ‘흠여지는 교회’로 재구축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 심히 우려가 되는 바이다.

우리는 현재 과학과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된 세상에 살고 있다. 과거와 달리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몸에 들어오면 어떤 부작용을 유발시키는 지,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얻는다. 특히 SNS를 통해 하루에 몇 명이 감염이 되었는지 사망하는지 생생한 정보를 얻고 있다.

대교회를 향해 그의 손으로 강하게 때리시며 정신을 차리라고 하신다고 하였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종교개혁의 정신이 마치 성도들이 처한 상황에 현혹시키는 언급에 몹시 당황하게 되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모토로 요약될 수 있다.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로마가톨릭교회 말기의 신학과 제도 속에서 전혀 교회의 미래를 발전할 수 없었다. 영적으로 숨이 막히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 유일한 해결방법은 성경의 진리에 마음을 쏟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다. 그들이 성도의 상황에 맞추어 ‘영적 백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미 오래되었고, 세속화로 인해 중세교회 말기의 모습과 유사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줄을 이었고, 나아가서 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문제 해결의 방법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도 ‘오직 성경’을 축으로 삼아야 한다. 성경적 개혁은 두 가지 사명을 요구한다. 성경적 진리를 거부하고 방해하는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하는 일이다. 또한 적극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진정한

적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부정한다.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발전, 그리고 최종 결과를 담고 있는 성경적 구원역사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 따라서 자유주의 신학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구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단지 교회의 본질을 성도들의 교제에서 정신을 찾으려 한다. 그들에게 교회는 단순히 사랑이란 정신을 공유하는 사회적 기관이다. 즉,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이끄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재도 자유주의 신학사상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 역사의 중심에서 능력과 지혜로 세상의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철저히 막고 의지하려는 신앙인들에게 거침돌이 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절박한 상황에 놓인 교회의 장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을 갖고 지혜를 구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그 문제 해결의 열쇠를 인간이 지니고 있다는 착각으로 무작정 덤벼드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우리의 계획과 방법대로 끌려가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모두 이해할 수 없다. 창조주와 창조물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머리되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깨닫고 수용하려면, 먼저 성경의 도우심을 받아 성경에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를 믿는 신앙에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성경적 신앙의 핵심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이 세상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질병과 사고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때 십자가 복음을 통한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도 신앙인을 지배할 수 없다. 즉, 우리가 ‘뉴노멀’을 언급하며 개인 신앙에 교회의 앞날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이전에 불변하는 뜻과 계획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선적으로 믿어야 한다.

covenantcho@yahoo.com

성경적 개혁: 성경적 진리 거부방해요소 제거, 성경진리 체계적 이해 수용 적극 실천

종교개혁 영적백신은 성경...회복할 성경적 신앙핵심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는 동력이 우리 인류의 손에 있다고 확신하였다. 그러므로 ‘뉴노멀’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경영 시스템의 구축과 의식의 변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가정 속에 이뤄진다.

신학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기독교의 진리를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도구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의 논리에 신학적 내용을 대입시켜 ‘바로 그것’을 추리해낼 수는 없다.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초월적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기초된 종교이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년이 조금 지났다. 현 시점에서 ‘올드노멀’과 구별되는 ‘뉴노멀’을 찾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과거로 돌아가

많고 빠른 정보로 인해 우리의 더욱 커다란 두려움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학수고대하던 백신이 비교적 빠른 시간에 개발되어 이미 접종이 시작되었다. 백신이 주는 기대감이 상당하다. 만일 기독교에서 논의하는 ‘뉴노멀’에 대한 대처방법을 일종의 ‘영적 백신’과 같이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학문적 지식이 깊은 신학자 또는 풍부한 경험을 지닌 목회자의 개인적 의견을, ‘바로 그것’으로 오해할 수 없다.

영적 백신?

코로나-19가 낳은 ‘뉴노멀’을 ‘16세기 종교개혁’과 같은 기회로 삼자는 견해를 접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중세교회의 두꺼운 벽을 파괴하신 것처럼 현

영적 백신’을 멀리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전통을 신앙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16세기 종교개혁은 성도들을 유일한 ‘영적 백신’인 성경으로 인도하는 작업이었다. ‘바로 그것’은 교회에게 이미 주어졌던 것이었다.

현재 모든 것이 잠시 멈춘 상태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 그렇지만 이미 코로나-19 위기가 닥치기 오래 전부터 한국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자성하는 목소리가 제법 들쭉났다. 특히 ‘평양대 부흥운동 100주년(2007년)’과 ‘종교개혁 500주년(2017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돌아보고 해결책을 찾아보았다. 이미 한국 교회는 성장이 멈춰진지

한 문제는 해결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현실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회의 장래

한국교회는 비교적 보수적이다. 그러므로 독일을 중심으로 18세기부터 시작된 성경의 역사성과 권위를 도전하는 학문으로서의 신학활동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다. 인간의 이성과 철학적 사고가 신학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인간중심의 사고를 토대로 성경에 대한 의구심을 더하는 연구가 지속된 결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자유주의 신학사상의 뿌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은 초월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응시자격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 Div 학위를 졸업 하였거나 2021년 6월 30일 이전(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 분.

고시과목

- a) 필기고시: (1) 교회사 (2) 조직신학 (3) 미국장로교회사 (4) 헌법 (이상 4과목)
- b) 제출고시: (1) 구약주해 (2) 신약주해 (3) 논문 (4) 설교원고 (이상 4편)

제출 고시 내용

- (1) 구약주해 : 창22:1-19
- (2) 신약주해 : 마5:1-12
- (3) 논문제목 : 온라인 예배에 대한 개혁주의 견해를 논하라
- (4) 설교본문 : 약5:7-11 / 약8:11-14
 - 설교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 할 것.
 - 고시 기간 중 설교실기고시를 치름.
- (5) 제출 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 표점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부는 PDF 파일로 서기에기에 이메일 할 것.
 - 레터 (8-1/2" x 11") 용지를 사용 할 것.
 - 한글 11호 크기의 폰트 사용, 줄 간격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호 Double Space)
 -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결장과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매 정도).
 -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 할 것.
 -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이름에 본인이름 및 과목 주제 이름을 사용 할 것. (예: 조성훈구약주해.pdf)
 - 파일이 너무 크면 나누어서 이메일로 보낼 것.

c) 면접고시

서류제출요령

- a)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1년 3월31일 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c) 합격자 발표는 45회 총회기간(5월 18일~21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합격 증서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 a) 일자: 2021년 5월 11(화) - 12(수)
- b) 장소:
 - 동부: 퀸즈장로교회(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김성국 목사)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 서부: 대웅장로교회(Dae Hung Korean Church, 권영국 목사) 15411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응시서류

-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21년 6월 30일 이전(30일 포함)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 b) 신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 c)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 d)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 e) 이력서(양력과 자세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 년도와 교회, 세례집행자) 1부
- f) 명함판 사진 2장
- g) 고시료: \$100 (USD) Pay to the order of - KAPC

참고사항

-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송일용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월 11일-12일 총회고시장소) 중에 사용할 속소를 예약 할 것.
-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 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 당함.
 -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 할 것.

제출처

고시부서기 : 송일용 목사 (Rev. John Y. Song)
주소 : 1641 W. 185th St. Gardena, CA 90248
전화 : (818.282.0112) / 이메일 kapcpastor@gmail.com

기타문의

- a) 고시부 부장 : 김재호 목사 (Rev. Kim Jae Ho) ezrakim59@gmail.com (C) 646.270.5987
- b) 고시부 서기 : 송일용목사 (Rev. John Y. Song) kapcpastor@gmail.com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조문휘 목사
서 기 : 이준우 목사
고시부부장 : 김재호 목사
고시부서기 : 송일용 목사

“뉴노멀 시대,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목회적 시각에서

류응렬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



팬데믹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는 이전처럼 대면예배가 어려워졌다는 점이고 현장예배를 대체하는 다양한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예르신들 가운데는 일체 치하에서도, 전쟁 중에도 예배는 모여서 드렸는데 교회 문을 닫는 현실에 아파하는 분들이 많다. 온라인예배를 시작할 때 즈음에는 몇 달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한 해가 지나도록 여전히 거센 파도처럼 몰아치는 코로나 바람 앞에 이제 온라인 예배는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현실로 자리잡게 되었다. 온 세상은 코로나와 함께 걸어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고 교회와 성도들의 삶도 코로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야 할 때가 되었다.

코로나를 맞이하여 현실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는 것은 더욱 필요하다. 새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변화하는 시대에 영속적 진리를 역동적으로 쏟아내야 하는 사명 앞에 놓여 있다. 뉴노멀 시대에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다섯 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온라인 사역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창의적 개발이 필요하다.

필자가 섬기는 교회에 20년 전 음향목사가 부임했을 때 강단에서 기타와 키보드로 연주한다고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다. 불과 수십년 전만 해도 손뼉을 치며 찬송을 하거나 설교시간에 아멘 하는 것마저 불편하

게 여긴 분위기도 있었다. 팬데믹이 가져다준 가장 큰 변화는 온라인 사역에 대한 생 각의 전환이다. 온라인 사역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시대는 지났다. 오늘날 온라인 사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효과적이고 실용적으로 잘 적용하여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유익을 끼치는 방향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귀로 듣는 복음에서 눈으로 보는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날 성도들은 100개의 채널

이런 정신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배양해야 한다.

둘째, 목회자 중심의 교회생활에서 평신도가 주체가 되는 생활신앙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신앙생활 하면 많은 경우 주일과 다양한 예배와 사역과 연관된 것인데,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에서 벗어나 본질적 신앙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기회를

생활에서 평신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영적 훈련과 신앙적 도전을 제공해야 한다. 팬데믹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무언가에 홀로 남겨진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내공을 키워주어야 한다.

특별히 성경읽기와 기도훈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말씀묵상 훈련, 소그룹 활성화, 제자훈련 강화, 기본 신앙을 넘어 제자화 시키는 사명을 고취시킬

서 교회의 본질을 세워가는 것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뉴노멀 시대에 선택과 집중은 필연적이다. 지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 이유가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이 지상에서 천국 같은 공동체의 교제가 일어나고, 지역과 세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근본적인 사명에 해당한다. 성도들은 교회가 근본적인 사명에 집중할수록 신앙의 성숙과 열정이 더욱 일어난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목회 방향도 계획도 없는 사람은 무엇이든 좋은 것은 다 하려 한다. 명확한 목회방향을 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복음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는 하늘에 속한 사람다운 품격과 위엄이라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지역과 함께 아파하고 그늘진 사람들의 손을 일으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파송 되어 흠여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다. 지역을 향해 하나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자체는 최고 전도가 될 것이다.

다섯째, 뉴노멀 시대에 진리의 말씀이 노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교회가 변화하 한다는 말이 많다. 세상이 다 변한다 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진리의 복음이다. 오히려 소망 없는 세상 속에, 첨단 문화가 가장 발달된 미국 속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때가 지금이다.

기독교의 복음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흐름에 직면해왔다. 오늘날까지 생명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상황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이 오늘까지 전파되어왔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시대, 절대적인 소망이 상실되는 시대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체계를 세워 세상 속으로 침투시켜야 한다.

뉴노멀 시대가 눈앞에 펼쳐졌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노멀이란 단어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정될 수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체계를 따라가는 삶이 노멀한 삶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노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이 시대가 꿈꾸어야 할 노멀한 교회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의 시련을 뚫고 이런 교회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preachchrist@kcpc.org

진리가 노멀이 되는 교회를 꿈꾼다

- ①온라인사역 개발 ②생활신앙으로의 전환 ③선택과 집중
- ④지역사회 향한 관심 ⑤하나님 정하신 체계 따라가는 삶

을 가진 리모콘을 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성도들에게 앞서 듣기만 요청하는 시대를 벗어나 들을 수밖에 없도록 귀와 눈을 열어 오감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 사역은 예배 뿐 아니라 교육, 훈련, 모임 등 거의 모든 사역을 가능하게 한다. 이전에 대면 모임 때는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지역과 국경을 초월하게 한다. 팬데믹 상황에 영적으로 비상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통로가 온라인 사역이다. 특히 온라인 사역은 기존 성도들 뿐 아니라 다음세대들 복음의 큰 인도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다. 모든 교회가 전문 직원을 모실 수는 없다. 요즘 젊은이들은 신기술에 자신을 드리는 호기심과 열정이 있다. 목회자가

제공한다. 목회자에게 의존하거나 교회 생활로 신앙을 평가했던 기존 잣대에 시각의 변혁이 일어난 것이다. 영상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단독자로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때가 된 것이다.

이전에 주로 교회라는 건물에 나와서 행해진 신앙생활에서 가정과 삶 속에서 진짜 살아내는 신앙으로 전환된 것은 본질을 발견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감사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종교개혁이 성경의 진리를 향한 말솜씨 혁명이라면 코로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깊이 들여다보는 신앙혁명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제는 평신도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일어나도록 세워야 할 때다. 목회자 중심의 신앙

필요가 있다. 평신도를 깨운다는 구호는 단순한 제자훈련의 모토가 아니라 신앙의 근본을 회복하는 운동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셋째, 본질적 사역과 비본질적 사역을 파악하여 선택하고 집중하는 사역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해 필자가 섬기는 교회는 3월 중순부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많은 사역을 내려놓거나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했다. 팬데믹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사역과 선택적으로 할 사역을 구분시켜 주었다. 교회 캘린더를 보면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아쉬운 사역도 많지만 그 사역을 내려놓는다는

가장 필요한 것에 집중하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도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를 향한 사명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까지 교회는 주로 밖에 있는 사람을 교회 안으로 들어 오기를 기대했다. 이제 교회 출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을 체험하면서 교회는 어느 때보다 복음을 교회 담장너머로 흘려보내야 할 때가 되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팬데믹이란 현실 앞에 백신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간다. 크리스천에게는 팬데믹이나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모든 인류의 유일한 백신이 예수 그리스도요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부크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08:45 금요일예배: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화,토) Tel: (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1,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3411),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pccof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강좌: 오후 12:30 주일학교강좌: 오후 1:30 수요일 찬양모임: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일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교인특별찬양: 매주 토요일 오전 5:30 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	사랑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주일 E.M.: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Tel: (604)584-086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 주일 2부 오후 1:50 주일 3부 오후 1:50 청년예배 오후 9:2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30 Tel: (347)513-1351, cheongs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회: 저녁 9:00 714중부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전 7: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61 Camocui S, Pavo Cep 01528-010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근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대뉴얼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 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뉴노멀 시대,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차세대 시각에서

황영송 목사 (뉴욕수정교회, AYC 대표)



한해를 마감하는 12월이 되면 여러 언론회사에서는 그 해에 주목받았던 인물 또는 기사를 나열한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2020년'을 검색하면 코로나-19 시작하여 대통령 선거, 또는 'Pandemic'(팬데믹)이 당당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이러한 기사는 한 나라만이 아닌 온 인류에게 변화의 가져다 준 내용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 좋지가 않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 코앞에 당면한 일만 본다면 분명히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 측면에서 본다면 10-20년의 미래가 앞당겨진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수십 년 먼저 접하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 오늘 현실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가 중요한 것 같다.

이번 팬데믹으로 인하여 여러 분야에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포스트코로나(Post-Corona)'를 분석하며 발표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을 뽑으려면 문명적, 기계적, 그리고 환경적 변화로 인한 새로운 '뉴노멀(New Normal)'이 시작될 것이라 발표한 바가 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의 교회와 사역의 현장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러한 변화 속에서 특히 다음세대를 향한 사역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생각해볼 수 없을 것이다.

이번 팬데믹은 교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대면 예배가 제한되고 이제까지 당연시 여겨왔던 모든 모임과 사역이 중단되었다. 교회의 위기라고 말할 수도 있다. 대형교회 소형교회 할 것 없이 모두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몇몇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그 전 교회의 모습으로 돌

아가거나 동일한 사역을 한다 해도 그 전과 같은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뚜렷한 방향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장기적으로 성도의 1/3을 잃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 젊은 세대는 어떠할까? 성도의 1/3 가운데 청소년이나 젊은 세대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 데이터(data)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뉴노멀' 시대 차세대는 어떠하며? 그들을 위한 사역이 준비되어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

현재 교회들을 보면 교육부와 영어회중(2세 사역)이 있는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일단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성인보다 어린 자녀들이 예배를 참

역할(function)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이다. 오래전부터 젊은 세대는 지구 반대쪽에 있는 친구를 SNS를 통해 서로 만남과 소통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말이고, 이들은 물리적인 만남 없이도 자기의 공동체를 이미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존재했던 공동체보다 포괄적으로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벽이 없는 공동체(A community without walls)라는 것이다.

그래서 'come!'이 아닌 'Go!'의 공동체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Go'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공동체가 한 자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이에 따른 시행착오로 더 많은 차세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창의적인 새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 하나는 디지털 사역이다. 교회가 디지털 사역을 활성화 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교회는 신학교를 나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 못지않은 디지털 사역자들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가들을 어디서 구할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교회 내에 젊은이들 가운데 재능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기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인재들을 교역자들이 선별하여 사역에 동역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석하거나 말씀 교육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듣게 된다. 한동안 EM사역이 활발했던 교회에서 비대면과 영상 예배를 드리는 하이브리드(Hybrid)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지만 참석하는 수는 25%도 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필자가 지난 봄 뉴욕교회협의회에서 '포스트 코로나-차세대'에 관한 주제로 오픈포럼 Open Forum에서 발표한 내용 가운데 3가지의 내용을 짚어오마 나누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공동체를 재조정해야 한다(Re-adjusting the Way We Do Community).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지만 신앙적 거리를 좁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공동체가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공동체와 다를 수 있다. 이것은 공동체의 정의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의

리에 머무는 지리적 또는 위치적인 유형에서 사람이 있는 곳의 공동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지 않을까 한다.

둘째는 창의적인 사역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Creative Paradigm to Do Ministry).

교회사역이란 교회마다 그 규모는 다를 수 있지만 'Ministry'의 기본은 거의 같을 것이다. 그러나 포스트코로나의 교회사역은 코로나가 있기 전에 사역의 모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아니 기대를 하면 안 될 것이다. Ed Stetzer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때문에 걱정을 한다. 어떤 이는 과거로 돌아갈 것 때문에 걱정을 한다"고 했다.

교회가 만약 코로나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다면 시대와 너무 동떨어진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차세대 사역은 더욱더 코로나 전의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준비하고 투자할 계획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는 명확한 방향제시와 소통이다(Clear Direction & Communication).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또 지도자는 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 할 비전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리더십은 위기 때 부각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있기 전과 그 후를 잘 살펴보면 위기 때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다. 필자가 살고 있는 뉴욕의 주지사 경우가 그렇다. 2019년 봄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코로나 환

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어려움 속에서 쿠오모(Cuomo) 주지사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뉴욕주 거주자들과 소통의 장을 열어 놓았다. 그리고 투명하게 모든 상황을 알리게 되었다. 그 소통이 심각했던 뉴욕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소통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조언과 협조를 받아야만 했다. 여기서 앞으로 교회도 영적인 요소는 물론이고 전문가들의 expertise(전문지식)가 필요로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한다. 교회 교역자가 만능 해결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수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와 조언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 갈 명확한 방향제시를 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앞으로 한인교회는 포스트코로나에 발생할 수 있는 Mental Health(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Social Distance(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감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운데 10명 중 7명이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혀졌다. 그리고 그중 50% anxiety(불안감)으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43%는 depression(우울증), 45%는 보통 때보다 Stress(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혀졌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 모든 요소들로부터 회피하려고 substance abuse(약물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뉴노멀 시대에 차세대 사역에 관한 해답을 찾아보지만 뚜렷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그럼에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답을 개인이나 한 교회가 찾기보다는 함께 정보를 공유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지혜로 답을 찾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젊은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들려주어야 할 말이 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말은 격려의 말, 확신의 말, 그리고 기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3C를 기억해야 한다. Connection, Conversation, & Care이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현재 거리두기로 물리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깝다고 느낄 때 그들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공동체에 남아 함께 '뉴노멀'을 준비하며 나아가 수 있을 것이다.

몇 가지 질문

글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다. 이 질문에 답은 이 글을 읽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그 방법과 답이 다를 수 있으나 질문을 통해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길 바란다.

- 1) How do we connect with our people without gathering?(모임을 갖지 않으면서도 그들과 연결을 해야 할까?)
- 2) What are the needs of our teenagers and their families?(청소년들과 그들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가?)
- 3) What do my students need from me right now?(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 4) How might I still minister to my students beyond youth group programming?(나는 어떻게 하면 청소년 프로그램 그 이상의 사역을 할 수 있을까?)

stevehwang@crystalchurch.org

'come!' 아닌 'Go!' 공동체 준비 • 교회 내 디지털 사역자들의 역할 기대

거리두기로 인한 정신건강 3C-Connection, Conversation, Care로 해결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남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성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www.youngnak.com	남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성년)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3333 Figueroa St., La Brea, CA 90027 Tel: (323)915-4499 www.lafgc.com	남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성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www.youngnak.com	남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성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www.youngnak.com	남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성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www.youngnak.com	남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성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www.youngnak.com
남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성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www.youngnak.com	남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성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www.youngnak.com	남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성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www.youngnak.com	남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성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www.youngnak.com	남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성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www.youngnak.com	남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성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www.youngnak.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뉴노멀 시대,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선교적 시각에서

김정한 선교사 (SON Ministries/GMAN)



지난 9월, 4차산업혁명과 선교전략 BAM 아카데미 171 졸업 및 G1 Node Station Director 자격증 코스에서 자격증 취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선교는 대한민국의 부침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1997년 12월 3일-2001년 8월 23일)은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IMF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역사가 있었다. 이때 한국교회는 국가적인 재정적인 위기 IMF에서도 선교사를 변함없이 파송하였다.

한국선교원(KRIM) 기록을 보면 1996년도에 전체 한국 선교사 파송수는 4,402명, 1998년 6월말을 기준으로 한국 선교사의 숫자는 5,948명, 1998년 6월말을 기준으로 한국 선교사의 숫자는 5,948명, 2000년 말 한국 교회는 8,103명의 선교사들을 136개의 선교회들을 통해서 162개국에 선교사를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https://krim.org/1996-korean-mission-statistics-pres/). 그리고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기준 2019년 통계는 171개국에 27,993명 선교사 파송으로 집계되었다.

IMF는 당시에 한국에 국한된 국내문제였었고 세계적인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의 코로나19는 세계적인 모든 국가들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에는 재정문제가 아니라 유행병과 치사율이 높은 병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재상황은 한국선교의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시간이 되었다. 한국선교의 새로운 방향과 적응 그리고 선교의 확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의 시간을 한국선교의 변곡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 사항들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본다.

1. 한국선교는 강한 선교가 되기 위한 “선교적자생존” 시기에 들어왔다.

IMF는 한국선교의 선교구조의 조정, 특히 재정 지원의 구조를 조정하는 결과를 만들도록 영향을 주었다. 교회의 선교후원이 중단되거나 감소된 상황에서 선교사의 선교사들은 본국으로 철수하거나 현지에서 사역을 축소하거나 하는 대안으로 조정기를 통과해야 했다. 이러한 어려움의 시기에 선교

계는 “적자생존”이라는 자연계의 원리와 같이 “선교적자생존”의 기간을 통과하였다.

환경에 적응하고 강해져야 선교가 생존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다. 이번의 코로나19도 IMF 시대보다 몇 배나 강력한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한국교회의 선교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에는 재정문제만이 아니라 선교사의 개인건강, 사역비, 자녀들 교육 등의 문제로 매우 심각한 위협 가운데 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다시 한번 한국선교가 강한 생존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코로나19가 한국선교에 기여하는 한 부분이 된

다고 본다.

2. 대형교회 중심 선교의 편중에서 중소형교회 선교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 되었다. 교회 출석성도의 수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헌금도 적어지고 있다. 따라서 해외선교사 파송이나 선교사 후원도 2021년도에는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대형교회들이 선교에 많은 노력으로 선교활성화에 중심축을 이루었던 것이 사실이다. 교회성장과 부흥의 시기에 맞게 대형교회의 선교도 부흥시기였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중소형 교회들이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동체연합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중소형 교회의 선교와 잘 맞는 선교전략이 전문인선교이다. 안수 받은 목사선교사 파송보다는 현지 선교사역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전문사역자들을 위해 교회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현장에서는 준비되고 있다. 특히 은퇴한 전문인들이 자비량으로 현장선교사들 도우며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

코로나19 이후의 현재 세계의 IT 테크놀로지 기술의 발달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앞당겨 열고 있다. 세계 어느 곳이든지 AI 인공지능의 발달, 사물인터넷의 사회 실용화 등 선교지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선교사들도 이제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배우고 적용해야 다양한 세대와 선교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다.

4. 공유선교의 확대

현재 선교지 문화와 환경의 변화에 적응 하려면 혼자서 독단적으로만 사역을 하는 시대는 지나고 있다. 이제는 “나만의 선교”로 드러내놓아야 한다. 선교사들에게는 연합공유선교의 형태가 아직 생소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단절되고 비대면시대가 되고 있는 현지 상황에서 한인선교사들이 서로 사역적 연대가 되어야 코로나19의 부정적인 비대면 사회를 이기고 선교사역을 더욱 효과적이고 선교사역에 더욱 몰입할 수 있다. 동물이 사냥을 하는 원칙도 무리에서 혼자 떨어져 있는 동물을 먹이로 공격하듯이 영적전쟁인 선

가 필요하다. 선교터밭을 갈아엎고 재정자립의 유실수를 심어야 한다. 눈뜨고 보면 돈은 현지에 깔려있다.

6. 현지 사역의 재정자립화
선교사역의 재정에서 선교비를 자체 충당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선교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물론 경제빈곤지역의 선교사들은 현실적으로 현지 사역비를 현지에서 충당하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기 전에는 불가능해보일 것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는 창의적인 방법들이 반드시 열리게 된다.

선교사 마음중심에 코로나19 이후에는 외부 선교후원금 유입의 비중을 줄이고 현지에서 재정 광택을 캐려고 마음을 정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문이 열린다. 긍정적으로 사고를 하고 외부후원에 의존하는 현지교회(사역자)를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 한다.

7. 선교의 창의성, 독창성을

코로나19와 한국선교의 변곡점과 제언

선교 자정능력 강화, 재정 현지화로 강력한 선교적자생존 돌입 중소형교회 선교활성화 기회, 교회와 동역 자립선교 구조 조성



황금기 선교사 동역사역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

한국교회에서 미자립 교회의 목회 상황에 대한 현실을 많이 보고 있다. 선교계도 여전히 자립선교를 하지 못하고 미자립 선교가 전체 한인선교사의 90% 이상이 미자립 선교를 하고 있다. 선교재정을 전적으로 후원금에 의존하여 선교하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믿음의 선교라는 개념도 있고 실제로 몸부림치며 도전하지만 선교사의 역량과 경험으로는 너무 어려운 난제이기도하다.

하지만 방법은 다양하다, 파송교회나 후원교회들과 동역으로 자립선교의 구조를 만들어 갈수 있다.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 그리고 도전하는 용기

개발하여 독자적 사역을 하라
선교사역의 모방시대는 지나갔다. 누구나 하는 선교가 아니라 누구나 못하는 선교를 해야 한다. 성령님이 인도에 무조건 순종하면 된다. 무모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 순종하여 진행 한다.

8. 선교에너지를 100% 쏟아 놓아 승부를 걸어야 한다
쉬운 선교에서 미친 선교를 해야 한다. 선교사는 미쳐야 선교사역이 장수한다.

9. 기도편지를 보내되 모금 목적 중심편지를 줄여라.

그러면 보여주지 않아도 될 선교사역이 개발될 것이다. 후원교회에 인정받기 전에 현지교회와 동역자들로부터 인정받는 사역을 펼쳐라. 독립의 의지를 키우고 선교지 자립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라. 한국교회에서 오는 돈에 묶인 선교의 틀을 깨 부셔라. 기도와 영성으로 움직이는 선교의 틀을 만들어라.

10. 선교사는 자기개발과 전문성개발이 평상시 준비되어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이 오면 평소 준비된 전문성과 자기개발이 있으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다. 아직 실제 전문분야가 없으면 죽도록 노력해 누구도 따라올수 없는 진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자기개발과 전문성을 꾸준히 공부하라.

11. 현재 선교사역의 속도를 무조건 200% 빠르게 속도를 내야 한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 스피드는 현재보다 최소한 200% 빨라지게 된다. 나태하고 게으른 저속도 선교사는 반드시 도태된다.

12. 선교인력 동원은 마무리 도전해도 꿈적도 안하는 젊은 층보다 나이가 쉬운 은퇴자들에 비중을 두라.

젊은 층은 아이 낳고 기르기 바쁘다. 요즘에 은퇴자는 아직 건강하고 은퇴연금으로 자비량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 현장선교사와 사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3. 선교동원에서 선교지 기회에 대하여 중소형교회들에게 많이 알리라

코로나19 이후는 소중하고교회(소형+중형 한인교회) 선교공동체를 만들고 움직이는 것이 새로운 기회를 열게 될 것이다.

나가는 말

코로나19가 가져온 한국선교의 변화는 그동안의 선교패러다임을 바꾸어야만 하는 도전들이 있다. 그 도전에 직면한 한국선교가 퇴보되지 않고 강화되며 성장하려면 한국선교 안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선교자정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재정부분도 현지화 되어야 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선교적자생존의 원리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고 더욱 강한 선교가 되게 할 것이다.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국방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20 혹은 J-1 Visa
-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 소집특강 및 Online으로 학점취득 가능
-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Midwest University와 함께 동역할 인재를 찾습니다
(부설- MIRI 연구소,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

- 교수 1. 경영, 마케팅, 리더십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 2. 신학, 선교, 목회,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 3. 국방, 항공, 상담 분야와 관련한 박사학위 소지자
- * Full time or Part time - Online Teaching, 전공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할수 있는 분

- 사역 개발 분야 - 산학협력, 인력개발, IT, 마케팅, 항공, 어카운팅과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자

- 자격 1. 미국에서 High School 과 College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자
- 2.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 3. 영주권 스폰 가능
- 4. 관련분야 경력자 선호

• 제출서류 : 이력서, 대학이상 성적 증명서, 자기 소개서
• 제출기간 : November 20, 2020
• 제출처 : jp@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c@midwest.edu

“뉴노멀 시대,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교육적 시각에서

이희갑 목사(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새해를 맞게 되면 의례히 지나간 한해를 반추해보고 새로운 한해에 대한 소망을 생각한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지만 우리가 1년이라는 지나간 시간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얻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는 것은 축복된 일이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로 시작되어 수많은 아픈 기억들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기에 2021년은 우리에게 희망이요 축복의 한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과연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한해를 소망하는 것은 또 하나의 실패를 답습하는 또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과거에서 교훈을 찾고 뚜렷한 목표와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이를 실천해야만 할 것이다.

교육학에서 의례히 강조되는 단어가 Learnability(학습가능성)이라는 개념이다. 과거로부터 배우자는 것이다. 과거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다. 왜 다투어 위대한 선군이 되었는가? 그는 자신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고 이를 반복하지 않았던 데 있다. 밋세바와 부도덕적 일을 저지른 그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나무라자 그는 바로 회개한다. 하나님의 궤를 아비남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 1차 실패하자(대상13:7-14) 그는 잘못된 일을 바로 잡고 2차 실행 때는 울법에 기록된 대로 옮길 것을 지시 실행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안착하게 된다(대상15:3-13).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난 2020년 한해를 통해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바로 잡아야 하는가?

2020년은 교회교육의 많은 어려움을 한꺼번에 노정시킨 한해였다. 팬데믹으로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또 교회 예배도 제한적인 수밖에 없었다. 여건이 좋은 대형교회에서는 테크놀로지를 통하여 빠르게 교육의 방향을 전환시켰지만 이마저도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흥미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2020년은 교회 교육의 실효성과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하였다. 교회

교육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가? 아이들의 영성을 강화시킬 방안은 무엇인가? 성인들, 특히 학부모들과 교회 성인들을 위한 사역과 아이들을 위한 교회사역의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러한 근본적인 고민과 해결책이 없으면 2021년 역시 시행착오만 반복하다 한해를 소진하고 말지도 모를 일이다.

교회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필자는 교회교육을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교는 우리와 문화, 언어, 삶의 조건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의미한다. 선교란 장기적 투자를 의미한다. 선교를 할 때 우리는 항상 그들이 복음의 핵심

점으로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그런 그들을 기성세대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교육시키려 해왔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인가? 교회에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것이다(silent exodus, already gone 현상)를 보라. 아이들의 숫자가 줄고 남아 있는 아이들에게도 패기, 도전의식, 창의력 등이 사라지고 그들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있다. 아이들의 사역이 어른들의 사역의 한 부족적 기능으로 해 오지 않았는가?

혹자는 얘기한다. 그들은 애초 그런 능력과 열정이 부족하다고. 과연 그런가? 그렇다면 현재 젊은이들이 왕성하게 사

역시아왕의 철저한 종교개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 그는 결국 죽었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지만 그가 뿌려놓은 씨앗은 찬란한 빛이 되어 세계 도처에서 열매로 피어났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고 율법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중에서 다니엘도 있었다. 다니엘이 어렸을 때 포로로 붙잡혀가서 모든 것이 다른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켰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바로 어릴 때 그가 받았던 철저한 신앙교육때문이다. 어렸을 때 그는 요시아왕의 율법 낭독 소리를 듣고 당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눈물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났다. 바로 그것

것이라고 전망한다.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교회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회학교 커리큘럼이 재정비하자. 성경말씀을 암송하는 전달식 교육방법에서 말씀 삶과 연계시키고 아이들의 사회적 정서적 기능을 확장시키는 교육 커리큘럼을 정비하자. 코로나가 확산되고 이로 인하여 아이들의 지적, 학업능력이 상당부분 뒤쳐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특히 수학영역에서), 그보다 더 심각한 현상은 아이들의 사회적, 정서적 부적응의 문제라는 것이 교육당국에 의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사회적 정서적 기능이 왜 중요한가? 성공적인 교육은 신뢰로운 관계성과 아이들의 긍정적인 자기 의식에 기반함을 알자. 바로 그것이 사회적, 정서적 기능의 핵심이다. 많은 연구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아이들에게 필요한 2가지 능력이 관계성과 자기인식이라고 하는데 동의하고 있다.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로

강조해야 될 것이 나에게 대한 의식이다. 성경에 요셉, 다니엘, 모세처럼 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만난다 해도 그들이 흔들림이 없었던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라는 확실한 자기 정체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놀랍지 아니한가? 15살의 다니엘이 고향을 떠나 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 와서 첫 번째 했던 이야기,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그 담당함은 어디서 온 걸까? 바로 자아의식이다. 다니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의미이다. 교회 교육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아이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벧전2:9)임을 똑바로 선포하고 이를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교회 커리큘럼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핵심 요소가 바로 리더십이요, 시대정신에 대한 성찰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역할을 어릴 때부터 깨닫게 하고 이를 감당하게 하는 리더십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또 시대정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통해 크리스천의 소명을 자각하는 교육이 교회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교육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수한 교사 없이 우수한 학생이 창출될 수 없듯이 탁월한 교사의 모집과 훈련에 전심을 쏟아야 한다. 지난 몇 세기 동안 미국 교육의 개혁을 관통했던 말이 ‘한 아이도 뒤처지지 않음’(No Child Left Behind)라는 슬로건이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슬로건대로 미국 교육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평론이 부각되고 있다. 왜 그런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필자는 교사교육에 대한 강조가 덜 이루어진 것이 그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한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라. 훌륭한 교사 밑에는 어김없이 훌륭한 아이들이 있었다. 교회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은 선교요 씨 뿌리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질문한다. 100년 후에 귀하의 교회의 모습을 그려보라. 100년 후에 귀하의 교회는 여전히 존재할 것인가? 존재한다면 무엇 때문인가? 어떤 교회로 남고 싶은가? 미래를 생각하면 씨를 뿌려야 한다. 지금은 바톤 터치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이다.

hlee0414@gmail.com

2021년 교회교육의 사명: 영성의 바톤 터치를 이룹시다

부모 교육권 확립, 커리큘럼 정비, 교사교육 강화 이뤄져야

을 알고 자립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어 왕성하게 사역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작 다른 문화권에 선교를 하기 위해 수많은 물적, 재정적, 인적 도움을 주고 인내와 사랑, 관대함을 보여주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조급함과 인색함으로 아이들의 창의성과 그들의 장점을 짓밟는데 익숙해졌다. 그러나 multiculturalism 관점에서 보면 인식의 차이는 문화에서 오는 것보다 세대적인 것에서 오는 차이가 훨씬 큰 것임을 연구는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이들을 이해함에서 교회 교육을 시작하자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은 기존 세대들과 너무나 다른 환경과 조건, 그리고 사회적 배경 하에서 성장해왔음을 인식하자는 것이다.

선교라는 것은 다른 세대와 접근방식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을 말한다. 선교란 기다리는 것의 의미이다. 우리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선교할 때, 당사 열매를 거두자고 선교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거시적 관

역하고 있는 주변 교회를 방문해보라.

그래서 2021년은 심는 시기이다. 아이들의 영성교육을 철저히 심는 시기이다. 그래서 영성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필자가 가장 존경하는 성경의 영웅이 곧 유다 16대 왕이었던 요시아이다. 그는 8살 때 왕이 되어 18세 때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서부터 영적회개운동을 시작한다. 사실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대상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 이전부터 계속 쌓아온 선대들의 불신앙과 우상숭배 때문이었고 이미 그의 증조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왕 때부터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달랐다. 그는 책임을 통감했다. 그리고 지도자의 위치에서 과감히 영성개혁운동을 전개했다. 그는 유다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를 예루살렘에 모이게 해서 율법을 들게 했고 왕인 그가 스스로 율법책을 낭독했다.

열왕기하 22-23장에 나오는

이 교육의 힘이다. 당시는 보이지 않아도 신앙교육의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2021년에 이러한 영성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를 위해 3가지를 명심하자. 부모의 교육권 확립, 커리큘럼의 정비, 그리고 교사 교육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부모의 교육권이 회복되어야 한다. 부모가 교회에서 자녀교육의 책임의 위치에 서야 한다. 유대인들은 전세계 0.3%밖에 안되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들의 교육시스템이 원인이다. 하브루타라는 교육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유대 부모가 자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다행히도 코비드는 부모에게서 교육의 권리와 의무를 상기시켜주는 많은 공헌을 하였다. 필자는 향후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가 코비드를 계기로 많이 증가할

다. 신뢰롭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

혹시 Oxytocin이라는 호르몬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하고 신뢰(trust) 충절(loyalty)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우리가 신뢰, 사랑, 애착, 안전감을 느낄 때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이는 서로간의 신뢰로운 관계를 수립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해도 자신을 세우려는 핵심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게 한다. 교회에서 성경말씀을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만 먼저 신뢰롭고 안전한 분위기가 창출이 더 중요함을 알자. 이는 특히 부모나 교회교사들이 꼭 명심해야 될 사안이다.

더 나아가 내가 누구인지, 나의 긍정적인 정체감을 교육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교육 포인트이다. 어려움과 트라우마가 지속되더라도 아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굳은 의지와 자신감이 있으면 이를 잘 대처한다는 것을 많은 연구가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교육에서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V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넬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화):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화): 오전 8:15 주일오후예배(화):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전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opedale, MA 01748	시애틀평양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www.on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제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9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915)927-1490, 사택: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찬양모임: 오후 3:00 토요일: 오전 5:30(화-금) Tel: (254)535-1842(H), (254)501-48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EM) 수요찬양: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804)560-7500, www.jkc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영준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5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kc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SFC, 교회 청소년 대상 설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 학생신앙운동(SFC)이 전국 16개 시·도 교회 출석 청소년 175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신앙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FC는 지난 18일 온라인으로 청소년 사역방안 포럼을 개최하고 기독교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다. SFC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 사역 현장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역방안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2주간 기독교학생들의 의견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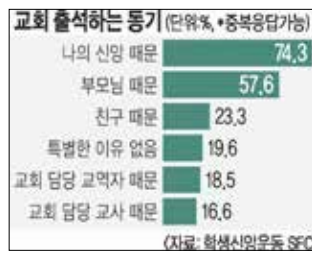
기독교학생들은 신앙에서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

님 말씀임을 믿는다'는 질문에 대한 답을 5점(매우 그렇다) 척도로 측정한 결과 4.22점을 기록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는다'는 4.33의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예수 그

학생 10명 중 7명 "내 신앙심으로 교회 다닌다"

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믿는다'도 4.35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 연구책임자인 이현철 고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교수는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친구들이 조사 대상자의 80% 이상이었지만 이들의 답변은 의외였다"며 "그동안 우리가 사역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신앙적 수준을 너무 낮게 본 것

아닌가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SFC가 '교회 출석하는 이유'를 묻는 항목에 10명 중 7명이 자신의 신앙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회여, 십자가 불을 다시 밝히시다

원로목사총연합회 · 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 기자회견

한국원로목사총연합회(총재 서기행, 대표회장 송용필)와 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총재 정근모, 대표회장 이주태)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십자가 밝히기 운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도시가 어둠에 묻혀있다. 코로나가 가져온 이 재앙이 도시의 밤을 질척과 같은 밤으로 끌고 간 것이다. 어둠이 삼켜버린

대한민국이 축복된 성탄의 계절을 침울하게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어둠의 시절을 만난 것은 한국교회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의 밤을 환하게 밝히던 교회의 네온사인이라 하고 또 한편 희미한 빛으로 도시를 비추는 십자가가 대한민국의 오늘을 가져오게 한 주범이다.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세상의 빛이어야 할 교회가 빛을 잃은 현실이 대한민국을 안

타까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만 것"이라고 진단했다.

단체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부흥과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은 도시의 밤을 밝히던 십자가와 함께 했다. 이때 세계 교회사에 유례 없는 부흥이 한국교회에 있었고, 21세기 지구촌에서 전례 없는 성장과 발전을 거듭한 대한민국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밤은 십자가의 빛으로 수놓은 분야성이었다. 십자가의 환한 빛이 민족의 어두운 밤을 밝혔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이끈 것이다.

단체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 땅을 덮고 있는 코

"장례 미리 준비하고 싶다"

하이패밀리 기독교인들 장례문화 인식조사

기독교인 대부분은 현행 장례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웨딩플래너처럼 죽음 설계와 장례절차 등을 지원하는 '엔딩플래너'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도 많았다.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는 '기독교인의 장례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기독교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메멘토 모리 기독교인연대'와 공동으로 주관한 설문조사는 지난 7-21일 전국 크리스천 125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방식은 본인 기입식 온라인 설

문이었다. 송길원 하이패밀리 공동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아 결혼 및 장례 문화가 간소화됐는데 결혼식은 미룰 수 있어도 장례식은 그러지 못한다"며 "설문조사를 통해 바른 죽음을 성찰하고 크리스천의 장례문화를 만들고 싶은 목소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행 장례문화 개선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57.4%는 '매우 필요하다', 37.6%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선이 필요 없다'고 한 응답자는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34.6%가 '과도한 장례비용'을 꼽았다. 이어 의미도 모른 채 끌려가는 장례절차(29.2%) 허례허식(21.0%) 상·장례 관련 업계의 부조리와 횡포(9.5%)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장례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48.0%가 '매우 그렇다', 45.0%가 '그렇다'고 답했다. 90% 이상이 본인 장례준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본인의 장례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로는 35.2%가 '기독교 문화를 실천하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32.2%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6.6%는 '내가 원하는 장례식을 위해'라고 답했다.

'2020 기독교문화 결산'

문화선교연구원 연말 세미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독교문화계는 힘든 한 해를 보냈다. 각종 공연과 집회, 영화 상영 등이 중단·축소되면서 문화사역자들은 생존의 위협까지 경험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내년에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소통하려는 노력이 이어졌고 온라인 문화선교의 가능성을 확인한 점은 긍정적이다.

백광훈 문화선교연구원장은 최근 서울 서대문구 필름포럼에서 세미나를 열고 코로나19 시대에 기독교문화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백 원장은 "올해 기독교문화의 플랫폼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됐다"며 "문화단체뿐 아니라 사역자들은 코로나19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감에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평가했다.

기독교영화제는 대폭 축소

기독교영화제는 전반적으로 침체한 분위기였다. 기독교영화나 기독교 가치관이 담긴 영화 등을 선보이며 관객과 소통한 서울국제사랑영화제, 한국기독교영화제,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영화제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지난 부활절에 재개봉 예정이었던 영화 '교회오빠'는 프리미엄 맞춤형정보서비스(VOD)로 대체했다.

백 원장은 "좋은 영화가 많이 제작돼야 내년에 코로나19가 종식돼도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주목할 만한 작품

이 꾸준히 나온 것은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화 '부활: 그 증거' '봉쇄수도원 카르투스오' '저 산 너머' '산티아고의 흰 지팡이' '아이 캔 온리 이매진' '가나의 혼인잔치' 등이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연 등 줄줄이 중단...유튜브 활용 온라인 문화선교 빛나

특히 김상철 감독의 영화 '부활: 그 증거'는 22일 기준으로 누적 관람객 수가 2만 9000여명이다. 삶과 죽음, 부활을 조명한 이 영화는 올해 국내 다큐멘터리 영화 중 종교부문에서 가장 많은 관객이 관람

했다.

공연계, 온라인 공연 모색

공연계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악화할 때 잠시 회복세를 보였지만,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광야아트센터는 뮤지컬 '더북 성경이 된 사람들'을 지난 19일까지 좌석 띄어 앉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공연을 완수했다. 지난 9월 말에는 한국교회회를 응원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광야 북음뮤지컬 집회'도 열었다. 뮤지컬 '천로역정' '평양마켓' 등은 온라인으로 관객과의 소통을 모색했다. 오프라인 찬양 집회가 힘들어진 찬양사역자들도 '번개탄 유튜브 부흥회' '광야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등 다양한 온라인 위시트를 선보였다.

유튜브, 다양한 콘텐츠 시도

백 원장은 기독교문화계가 앞으로 유튜브 콘텐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유튜브에서 기독교 콘텐츠

다만 이 교수는 기독교학생들이 높은 신앙 수준과는 반대로 일상생활 및 신앙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각각 3.80점과 3.6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됐다고 전했다. 신앙고백과 실제 삶에 불일치가 나타난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청소년 사역자들이 생각해봐야 할 포인트"라며 "신앙고백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SFC는 이번 포럼에서 공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 '코로나 시대 청소년 리포트'를 출간할 예정이다. 관련 자료를 한국교회와 공유해 미래 청소년 사역 방안 마련의 기초로 사용할 계획이다.

로나의 어둠의 역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퇴치하고 극복해야 한다"며 "코로나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로 바이라스는 떠나게 될 것이고 십자가의 빛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주님의 보혈로 적시고 대한민국의 도시마다 밝은 십자가의 빛을 다시 밝힐 때, 민족은 소망이 있게 될 것"이라며 "이 희망이 넘치는 사역에 한국교회와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한다. 잃어버린 십자가의 빛을 다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향숙 하이패밀리 공동대표는 "조사 결과에서 장례를 통해 기독교 가치관을 실천하고 싶은 선교적 소망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엔딩플래너가 있다면 도움을 받겠느냐는 질문에 56.2%는 '도움받고 싶다', 23.5%는 '매우 도움받고 싶다'고 답했다. 도움받고 싶은 부분으로는 죽음설계(41.8%) 장례절차(22.5%) 호스피스 등 의료 관련(19.1%) 순으로 답했다.

김 공동대표는 "장례절차 개선뿐 아니라 엔딩플래너 양성, 유가족의 정서 돌봄이나 애도 등을 위한 임종휴가 법안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12년 소송전 중단하고 미래위해 힘 모으자"

기감 12개 연회 감독들 화합 회복 성명 발표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이철 목사) 12개 연회 감독들이 '세상의 빛으로 다시 서는 감리교회'를 바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12년간 계속된 소송전을 중단하고 기감의 안정을 위해 마음을 모으자는 뜻을 담았다.

감독들은 "오랜 갈등을 뒤로하고 세상의 빛으로 다시 서자"면서 "이철 감독회장은 한국교회총연합 공동 대표회장으로 선출됐으며, 내년에는 아시아 감리교협의회와 협력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이끌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기감의 안정을 통해 교계와 사회, 한반도 평화에 교단이 기여해야 할 때라는 의미다.

이어 "감리교회의 안정을 위

해 기도해 달라"면서 "법과 제도를 넘어 새롭게 펼쳐질 한국 감리교회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 감독회장은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다"면서 "이는 재발 소송을 멈추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감리교회 구성원 전체의 염원이 담긴 결과로 서로에게 겨는 총부리를 거두자"고 권했다.

감독들은 "지금이라도 멈춰가는 기감의 생명을 살려낼 골든타임"이라며 "모든 소송을 멈추고 대화하자"고 재차 당부했다. 끝으로 "목회자들은 목양의 보람을 회복하고, 성도들은 감리교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감독들이 먼저 기도를 위해 무릎을 꿇겠다"고 약속했다.

낙태죄 입법 공백 사태 현실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28일 성명 발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11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상 낙태죄 개정 시한이 31일 마감된다. 그러나 국회는 낙태 관련 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았다. 새해부터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이 효력을 잃게 돼 셀 수 없는 생명이 법적 보호의 장치 밖으로 몰리게 된다.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62개 단체의 연합체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는 28일 '대통령과 국회는 태아 생명권 수호에 즉각 나서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성명에서 "국회에는 이미 정부와 의원 발의 형법 개정안 총 6개가 제출돼 공청회까지 마친 상

태나 아직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 새해를 맞게 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낙태죄 입법 공백 사태가 현실이 된다. 수많은 생명이 법적 보호 장치 밖으로 내동댕이쳐질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달성해 소관위원회에 회부됐다"며 "국회는 더 이상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낙태죄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에는 헌법상 의무인 태아의 생명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신년설교

(3면에서 계속)

이 빛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자. 빛의 열매를 맺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자. 그러므로 세상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두움을 책망할 수 있는 충분한 빛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면에 있어 성도들이 실패한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얼굴을 들고, 빛 되신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자. 예배시간은 태양 빛과 같은 주님의 빛을 받는 시간이다. 이 빛을 가지고 세상에 육 문화 등 여러 장르를 선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윤진 한성교회 간사가 이끄는 워십팀의 예배 상황과 찬양 동영상에 누적 조회수 1억회 이상을 기록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백 원장은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찬양 콘텐츠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김윤진 간사의 찬양 동영상은 교계에서 최초로 1억 뷰 이상을 돌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 '골목교회' '교회언니페미토' '달빛마을TV' '카우치 워십' 등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 채널이 개설됐다.

백 원장은 "기독교문화계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미디어 상황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장점을 살려 문화 사역을 확장해야 한다"며 "디지털 콘텐츠로 잘 구현하려면 먼저 오프라인 콘텐츠가 탁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코로나19 시대에 기독교 문화 콘텐츠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담아 내야 한다"며 "기독교가 무거운 이야기가 아닌 일상과 분리되지 않은 이야기로 문화 콘텐츠를 풀어가도록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론

(2면에서 계속)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ZARA의 회장은 여전히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항상 같이 밥을 먹고 단 한 번도 개인용 짐부실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50조 기부 주커버그는 퇴근 후에는 가족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의외로 이들의 삶은 매우 단순하고 평범합니다. 이들은 좋은 스포츠카나 명품 옷과 팬트하우스 등을 마음만 먹으면 아주 간단하게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리고 그것들을 싫어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을 때를 씁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애초에 그 방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가장 소중한 것에 집중"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미니멀리스트(Minimalist)"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은 예수 따라 이리저리

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불신자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도 되겠지만 이미 예수 믿는 우리가 빛이 됐으므로 어두움에 있지 말고 빛을 잃지 말고 잠자는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어두움에 속해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 안에서 빛이 되자.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두움의 일을 따랐다면 회개하고 다시 빛 되신 주님을 믿는 빛의 자녀로 살자. 주님의 빛을 받아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또한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란다.

moonhcho@hotmail.com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배이사이드장로교회)



반석 같은 말씀을 기초로 삼는 새해가 됩시다

뉴스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자리 잡고 있는 밀레니엄 타워(Millennium Tower)가 17인치가 땅 밑으로 가라앉았고 14인치가 옆으로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밀레니엄 타워는 2008년도에 완공된 58층의 건물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주거 건물로는 가장 높

고 비싼 고급 주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겨서 한 가구당 100만 불이 넘는 콘도가 이제는 그 가격이 평균 32만 불 정도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 건물이 그렇게 된 이유를 한 비평가의 말하기를 그 건물을 짓기 위해 처음에 기초공사할 때 80피트

의 깊이로 봤는데 그곳은 모래가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래 그 건물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바위가 있는 곳까지 200피트를 파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80피트나 파지 않으니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렇게 기초공사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NBC Bay Area 방송 보도로는 밀레니엄 타워는 지금도 계속 땅속으로 가라앉고 있다고 하면서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건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6,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

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유는 짓기가 쉽다는 이유에 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짓기는 쉬운데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100%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뜻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닌 세상 편한 방법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참 쉬운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어려움이 올 때는 모두 힘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지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

은 반석 같이 든든한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건설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어떤 일이 생겨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건설하기 위해 말씀을 따라 사는 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슨 큰일을 도모하는 것 보다는 나의 하루하루의 삶에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거지말하지 말고, 남을 속이는 일도 하지 말고, 정직하게 근면하게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삶은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 같이 되어 어려울 때를 만나도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만한 곳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는다는 것

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 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더구나 지금은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앞날이 더욱 불투명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반석 같이 든든한 말씀은 우리의 삶을 무너지지 않게 떠 버쳐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넉넉히 재년의 때에도 살아가게 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한 우리는 그 시작부터 말씀을 기초로 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12월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참 든든하게 세워져 있음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david2lord@hotmail.com



제118주년 미주한인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 이병만 장로가 설명하고 있다

제118주년 미주한인의 날 기념행사 연다

1월 9일(토) 오후 2시 코너스톤교회, 기념책자 발행

제118주년 미주한인의 날 기념행사가 1월 9일(토) 오후 2시 코너스톤교회(담임 이종용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이 민생활 중 선배 한인들의 업적을 기리고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한인의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리고 별도의 기념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12월 24일 오전 11시 평화교회(담임 김은목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미주한인재단 LA 회장 이병만 장로는 "팬데믹 상황 속에 열리는 만큼 행사가 열리는 코너스톤교회에 100명 정도의 인원만 참석해 열리게 되지만 유튜브 방송으로 미전역은 물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방영해 한인 이민역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번 행사는 박경제 LA총영사가 참석해 기념사를 하게 되며 기념예배, 기념식 및 행사로 열리게 된다. 기념행사는 '한인 이민역사'를 재조명하는 취지에서 선배들의 발자취를 찾아갈 예정이다. 모든 행사와 강사들이 같은 주제로 각각의 시각을 담은 해설과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민 118주년을 맞아 '역사를 빛낸 미주한인 15인'이라는 주제로 출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상명 총장(미주장신대)은 "미주지역에 한인들이 이주해 온 이후 한인커뮤니티를 발전시켰다. 사회 각 분야에서 이민 선배들이 많은 기여를 해주었지만 주목받지 못하고 후세대들에게 그들의 업적을 전하지 못

했다. 따라서 각 분야 미주사회에 많은 기여를 했고 세계인으로 인류와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 그들의 업적을 기리는 내용을 책자로 출판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기념책자는 400페이지 분량으로 2021년 12월 출판 목표로 집필 작업에 들어간다. 수록될 15인으로는 △항일독립운동가, 민족계몽가: 하와이 한인 이민 여성들, 서재필, 이승만, 안창호(이상 집필가 미정), 이대위(집필 유석중 목사), 김마리아(집필 김인수 박사) △기업가: 유일한(집필 옥세철 미주한국일보 논설위원) △군인: 김영옥(1월중순경 집필 확정) △체육인: 세미리(집필 미정) △문화자: 김계용(집필 임운택 박사), 임동선(집필 이정근 목사, 송정명 목사) △예술가: 백남준(집필 박현욱 청운대 공간디자인학과 교수) △문학자: 김은국(집필 이상명 총장) △과학자: 이휘소(집필 김관식 박사) △과학: 강영우(집필 김홍신 소설가) 등이며 전원 작고한 자들이다.

이상명 총장은 "올해는 한국어로 책자가 출판되지만 이민 120주년 때는 영어로 번역해 출판해 1.5세대와 2세, 그리고 3세대는 물론 전 미주사회에 이민한인의 역사를 알리게 될 것"이라 말했다.

<박준호 기자>



미주 청소년 온라인 Youth Higher calling Conference 2020에서 오운태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Youth Higher calling Conference 2020

미주청소년 온라인 컨퍼런스, 은혜롭고 풍성하게

미주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첫 번째 Online Youth Higher calling Conference(YHC)가 미주성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가 주최하고 순무브먼트 주관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오후 시간에 ZOOM 과 Youtube live를 통해 진행됐는데 456명(6-12학년)의 학생들이 멕시코부터 미주의 뉴욕과 플로리다, 아리조나, 워싱턴DC, 조지아, 뉴저지, 네바다, 하와이 지역까지 6시간의 시간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찬양과 말씀, 기도와 헌신의 시간 및 성찬식 등이 진행됐다.

Zoom을 통해 8개의 선택 특강

과 또한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전문적인 기독교 상담가들의 멘토링과 기도로 격려하는 Soul care 시간 및 교회 별로 그리고 다양한 학생들이 섞여진 스몰 그룹(순모임)이 진행됐다.

주 강사로는 순무브먼트 대표 오운태 목사와 김대훈 목사(New Beginnings Crosspoint 교회), 데니얼 한 목사(Mourning to Gladness Church)가 8명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심대들이 기존 교회에서 접하기 어려운 각종 주제들을 갖고 선택특강이 진행됐다.

학생들의 참여를 격려하고 집중하도록 온라인 게임과 또한 영상 간증들 중에서 선발해

램탑 컴퓨터 등 상품이 제공되기도 했고 스몰그룹 모임에서는 학생들이 간증과 마음을 열고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YHC 준비위원장 박종술 목사는 "이번 처음으로 온라인 집회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쉬우면서도 깊이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개인 개인이 각 가정에서 참여해도 그 장소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 앞에 참가학생들의 인생이 변하는 현상이 되도록 기도하며 준비했다"며 "특별히 마지막 날에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손을 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다양한 분야에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고 간증했다.

또한 프로그램 담당 이기송 목사는 "이미 인터넷이 이 시대 심대들의 소통의 통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더욱 발전시켜서 전 세계 어디든 가지 못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청소년들을 훈련할 수 방법들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번에 제작되고 방송된 모든 자료들은 유튜브를 통해 계속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다가올 2021년...

(2면에서 계속)

중국은 2020년 주요 경제국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고, 2021년 중국의 성장률은 7%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과 미국의 회복속도보다 훨씬 빠른 성장이다. 또한, 중국은 서구의 경제권처럼 정부의 재정 적자와 엄청난 경기부양책에 기대어 경기를 회복시킨 것도 아니다. 경제적 성공은 물론 코로나바이러스를 조기에 극복한 중국은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승리를 자축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성공은 서구 경제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미국은 불안정한 성장 속에서 새해를 시작할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정부 지원으로 간신히 해고를 면한 사람들과 국가 보조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이 늘어나고, 오랜 침체를 겪을 것이다. 대서양을 접한 미국과 유럽은 코로나 대응으로 심해진 불평등에 시달리게 된다.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저소득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었고, 학교 교육이 혼란에 빠지면서 저소득층 자녀의 미래가 암울해졌다. 불평등이 사회적 분노와 갈등을 부채질하고, 미국은 여전히 분열된 국가의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서구가 큰 피해를 본 반면 중국은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계기

로 서구가 주도하는 세계 질서가 끝난다고 선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시기상조다. 중국의 백신 외교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종전보다는 두려움과 의심을 먼저 불러일으키는 국가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을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세우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무시하고 거래 중심의 외교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는지 몰라도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다.

다시 말해, 미국은 여전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능력과 힘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휘하는 위치에 오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정치경력 50년에 가까운 78세의 조 바이든이다. 주로 민주당 주류의 편에서 서서 합의를 중시하는 온건파였던 조 바이든은 새 시대를 대담하게 열어젖히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그 역할에 어울리는 사람일 수도 있다. 바이든의 정책기조는 진취적이다. "더 나은 재건"이라는 슬로건을 필두로, 대담하지만 급진적이지 않은 시도를 보여준다. 미국의 신속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친환경 인프라, 녹색기술 개발에 대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이것을 단기적 경기 부양책과 묶어서 추진하

려는 것이다.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고, 사회 보증을 개선하는 바이든노믹스(Bidenomics)의 사회 계약 모델은 21세기 버전의 "진보의 시대(Progressive era)"를 떠오르게 한다.

외교 정책을 한번 살펴본다. 바이든은 기존의 국제 관계를 회복하고 미국의 가치와 국제적 역할을 복원할 것이다. 외교 전문가이자, 본능적 다자주의자, 체제 구축의 달인인 바이든은 국제 사회에 미국의 복귀를 신속하게 알릴 것이다. 파리 기후협정에 재가입하고 세계보건 기구에 복귀할 것이며 글로벌 백신 공급 기구인 코백스(COVAX)에 합류할 것이다. 나토(NATO)와 대서양 동맹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선언하기 위해 유럽으로 빠르게 향할 것이다. 바이든은 미국 외교 정책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높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인 탄압과 홍콩 억압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중요한 이슈인 대(對)중국 정책을 놓고 보면, 바이든은 그간의 방향성을 전면적으로 돌리기보다는 접근 방식을 바꿀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정부도 여전히 신흥 강국인 중국의 위협을 경계한다는 뜻이다. 다만, 트럼프 정부처럼 일방적인 관세 부과가 아니라, 중국에 대항하는 다자 연합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특히, 중국 IT 기업에 대한 유럽의 공동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대서양 그

랜드 바겐 협상이 기대된다. 유럽이 미국의 대(對)중국 대응에 동참할 경우, 유럽이 우려하는 미국 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세금 회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더불어, 새로운 국제 동맹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들을 중국에 대항하는 서구 동맹에 끌어들이는 시도가 성공한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토대가 될 것이다.

분명히 기회는 있다. 바이든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찬스를 날려버릴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경

우다. 바이든 정부가 효과적인 행동 없이 번지르르하고 온건한 말에만 치우치는 경우이다. 또는, 미래의 세계를 건설하는 것보다 과거의 세계를 회복하는 데 지나치게 집중할지도 모른다.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고, 경직된 다자 관계를 복원하는 데 몰두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공화당이 두려워하는 진보 정책의 난립이 아니다. 무대응, 소심함, 정체이다. 만약 그렇다면, 미국과 세계에 끔찍한 수치를 안길 것이다.

결국 코로나19 해결책을 찾는다고 인류의 평가가 찾아오



주님의식탁선교회 성탄예배에서 정인수 목사가 찬양인도하고 있다.

참석자 제한 두고 성탄예배 주님의식탁선교회, 이용결 목사 '삼겹살' 축하

주님의식탁선교회(대표 이종선 목사)가 성탄 당일인 12월 25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성탄축하 예배를 드렸다. 코비드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 예년의 1/3 정도인 20명으로 제한 참

석하도록 했다. 이날 설교를 맡은 이용결 목사(필라델피아성령교회 원로)는 "목자들의 경배"(눅2:8-20)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성탄절에 기쁨과 평강의 소식을 전한다"며 "우리는 종말론

적 신앙 자세로 살아야 한다. 복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매일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생활을 하라, 성탄소식을 널리 안 믿는 자들에게 오늘부터 예수님 소개하는 삶을 살라"고 강조했다.

또 뉴욕 좋은교회 담임 정인수 목사가 뜨겁게 찬양을 인도했다.

이날 친교 음식은 이용결 목사가 풍성하게 제공했으며 선물도 배부했다. 이종선 목사는 "우리 형제들에게 포근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의 떡과 선물까지 삼겹살로 삼겨주신 이용결 목사님께 감사한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주님의식탁선교회)

교계 게시판

KAPC개혁장로회대학원 2021년 봄학기 학생모집 및 겨울특강
 KAPC 개혁장로회대학/대학원(총장 이정현 박사) 겨울특강이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신성육박사의 '원포인트 강해설교' 과목으로 진행된다. 금번 겨울특강은 신학박사 및 목회학박사 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청강도 환영한다. 한편 2021년 봄학기 원서마감은 1월 31일까지이며 학사과정, 기독교교육학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과정, 편입생 과정, 편목과정을 모집한다. 또한 박사과정은 목회학박사과정과 신학박사과정이 있다. 본교 M.Div 과정을 졸업한 학생에게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서 시행하는 목사고시에 응시해 안수 받을 자격이 주어지고, 각종 장학금이 있다.

▲문의: 김동진 학감(626)675-8010 djkim3333@gmail.com

남가주새누리교회 한국학교 교사모집

남가주 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 한국학교에서 온라인 수업 담당 교사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어린이반(한글 자음, 모음, 이중 모음, 쌍자음 배우는 반/짧은 문장을 읽고 만드는 반), 큰아이반(SAT한국어 준비반)이며 지원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미국, 한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다. 수업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오후 12시20분(3교시 수업).

▲문의: gloriakim0828@gmail.com

유스그룹 사역자 청빙

복음장로교회(담임 이광형 목사)에서 Youth Group 사역자를 청빙한다. 자격은 △건전한 신학교 재학 혹은 졸업자(개혁주의 신학을 기반으로 공부 중이거나 공부한 자) △영어로 사역해야 하며 한국어 능통자 우대 △Youth 사역 경험자 우대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미국 거주자이며 이력서(가족관계 포함), 개인 신앙고백서, 이전 교회나 사역지에서 추천서 2부, 개인 혹은 가족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 (562)694-6214

담임목사 청빙

미남침례교단에 속해 있으며 워싱턴주 스포캔에서 7년 전에 개척된 스포캔반석침례교회가 담임목사의 귀국으로 새로운 담임목회자를 청빙한다. 자격요건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혼 사랑과 복음의 열정을 가진 자 △미남침례교단 인정 신학대학원 졸업자 △영어 의사소통 가능 △영주권 소유 이상자로 미국 사역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모님 피아노 반주 희망 등이며 제출서류는 추천서 3통(목회자, 성도, 그의 지인), 이력서, 최종신학교 졸업증명서 및 목사안수 증명서, 신앙간증 및 목회소명서, 자기소개 및 가족소개(최근 가족사진), 2편 설교동영상이나 MP3(Internet Link)다. 접수마감은 1월 31일까지.

▲문의: bcmac62@comcast.net

은혜한인교회 특별새벽부흥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회복되어 땅 끝까지 빛을 발하자!'라는 주제로 특별새벽부흥회를 4일(월)부터 9일(토)까지 개최한다. 이번 부흥회는 온라인예배로 드리지며 시간은 월-금 오전 5시20분, 토 오전 6시, 일정과 강사는 4일(월) 한기홍 목사, 5일(화) 최광 선교사(황금종교회), 6일(수) 강형민 목사(비쉬벡 GMI 선교사), 7일(목) 김도현 목사(베네수엘라 GMI선교사), 8일(금) 남병진 목사(인도 GMI선교사), 9일(토) 조경호 목사(샌피터스버그 GMI선교사)다.

▲문의: (714)446-1000

월드미션대 크리스마스 콘서트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음악과(과장 윤임상 박사)는 온라인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지난 12월 11일에 열었다. 이번 콘서트는 학교 홈페이지와 유튜브라이브로 방송됐다. 이날 콘서트는 보컬 허지애, 이경희, 소프라노 박미

전, 바리톤 장상근, 피아노 임현정, 김진경, 클라리넷 백동훈, 재즈앙상블(피아노 제프폴렐라, 어쿠스틱 베이스 크리스 콜란젤로, 드럼 켈달케이) 등 본교 음악과 학생들과 교수들이 아름다운 공연을 선사했다. (박준호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2월 정기예배 및 월례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을 따라 성결과 담대함으로!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2월 정기예배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가 12월 정기예배 및 월례모임을 갖고 2020년을 마무리했다. 23일 오전 10시30분, 뉴욕 기쁨과영광교회(전희수 권케더린 목사)에서 열린 예배는 상임고문 박진하 목사 인도로 기도 박이스라엘 목사(사무총장), 설교 장석진 목사(이사장), 합심기도, 축도 전희수 목사(상임고문) 순서로 진행됐다.

장석진 목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자"(수3:1-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일주일 후면 우리는 2021년이라는 미지의 길에서 있을 것"이라며 "미국에 온지 40년 됐는데 지난 시간 나의 길을 인도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장 목사는 "본문에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공포를 극복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첫째, 법계 즉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라(3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둘째, 성결을 소유하라(5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약속을 믿고 계명에 순종하는 겸손을 드러내며 성결해야 한다. 셋째, 당대히 행동하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길만이 필요하다. 2021년에 선교사역을 하는 기아대책이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 차는 축복의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부 회의는 회장 권케더린 목사가 "성탄의 계절에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하며, "2021년이 더욱 발전함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해가 되기를" 기도한 후 시작됐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매년 12월에 정기총회를 가졌으나 이날 회의에서 12월말까지 회계정리를 마친 후 내년 1월에 정기총회를 열기로 했다. 또 회장, 이사장 임기 및 임원 자격 등에 대한 회칙 수정안을 정리해 1월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이날 전체 후원자의 아동후원금 내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

해 보고함으로 투명성을 더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콜롬비아(김혜정 선교사), 페루(김종원 최은실 선교사), 과테말라(장경순 박은성 선교사), 코트디부아르(김형구 이선미 선교사), 엘살바도르(황영진 황은숙 선교사) 지역에 아동을 후원하고 있으며 아동 1명당 한 달에 30달러를 후원한다. 현재 후원아동은 총113명이다.

또 아동후원 외에 선교지에 필요한 건축 및 물품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breadngospel.org)를 참고하면 된다.

▲아동후원 문의: (646)47-8258 권케더린 회장, (917)667-8555 박이스라엘 사무총장

(유원정 기자)



미주장신대동문회총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회장 박종희 목사, 부회장 오충성 목사

미주장신대동문회 정기총회, 회장단 연임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동문회 39회 정기총회가 지난 10월 26일 아름다운 동산교회에서 열린 가운데 동문회장에 박종희 목사(코이노니아 선교회 대표)와 부회장에 오충성 목사(하늘기쁨의교회 담임목사)가 연임됐다.

회장 박종희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 동문회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변화를 도모해야 할 때"라며 "세계에 흩어져 다양한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는 동문회들의 구심점이 되는 동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회장 오충성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1부 예배는 우상립 목사가 대표기도를, 차유니 전도사가 성경봉독(전4:7-12)을, 박종희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민준기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박종희 목사 사회로 진행된 2부 총회는 오충성 목사의 기도

후 부서기 이순애 목사의 회원점명 및 서기보고, 회계 차유니 전도사의 회계보고, 감사 김선광 목사의 감사보고가 이어졌다. 이번 총회에서 박종희 목사와 오충성 목사가 다시 선출돼 동문회장과 부회장으로 연임하게 됐으며 총무 양태진 장로, 서기 이명환 목사, 회계 유인선 목사, 부서기 이순애 목사, 부회계 차유니 전도사 등으로 임원진을 조직했다.

신임회장의 폐회 기도도 총회를 마친 후 박종희 목사 식사기도 후 장소를 전교실로 옮겨 식사 및 친교시간을 가졌다.

39대 동문회는 2021년 상반기에 △사랑의 선물 나누기(1월 11일) △찬양 집회 △선후배 동문과의 만남을, 하반기에는 △동문초청 야외모임 △찬양축제 △40회 총회(10월 25일) 등을 계획하고 있다.

▲문의: 박종희 목사 (310)508-2733, 양태진 장로 (909)762-0915

(기사제공: 미주장신대 동문회)



남가주밀알선교단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밀알사랑나누기'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장애인 가정 방문 선물 전달

남가주밀알, 성탄맞이 '밀알사랑나누기'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밀알사랑나누기'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지난 12월 19일과 22일에 크리스마스를 맞아 각각 OC와 LA 지역 장애인 가정에 정성과 사랑이 듬뿍 담긴 선물을 전달했다.

OC 지역은 산타페스프링스에 위치한 밀알 사무실에서 Drive-thru 방식으로 사랑나누기 행사를 진행했고, LA 지역은 밀알 사역자들이 장애인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선물을

나눴다.

이종희 목사는 "가족이나 바깥 활동이 자유롭지 못해다가 코로나19 방역지침 강화로 크리스마스가 돼도 어디 갈 수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집에서 외롭게 지내야하는 장애인들은 밀알로부터 푸짐한 선물을 받고 산타 할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크게 기뻐했으며, 선물 자체도 감사하지만, 밀알 사역자와 봉사자들이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정겨운 안부 인사를 나누며 함께 올리는 간절한 기도에 더욱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며 "모두가 힘을

어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 취약 계층인 장애인들이 더욱 큰 소외와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남가주밀알선교단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3월 말부터 현재까지 총 20차례 이상 진행된 밀알사랑나누기 프로젝트를 통해 LA와 OC 지역 장애인 가정들에 도시락, 쌀, 라면, 과일, 화장지, 비누, 손세정제, 마스크 등 식료품/생활품을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많은 교회와 단체, 개인들이 물품과 후원금을 지원했다. '밀알 사랑나누기' 프로젝트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후원물품을 전달해주시실 수도 있고, 온라인 송금 서비스 앱인 'Venmo'를 이용해 후원할 수 있다(남가주밀알 Venmo ID: @Milal-Mission-SCA). '밀알 사랑나누기'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기사제공: 남가주밀알선교단)

'길은 보입니까?' ...

(5면에서 계속)

인간이 위대한 희망으로 지향해 나갔던 과학과 의술을 비롯한 생명공학의 찬란한 발전의 논리와 체계로서 내놓은 현대인들의 운명이 도대체 생명체도 아닌 한낱 기생(寄生)으로라야 겨우 살아가는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오히려 인간이 원시성을 향한 그리움으로 나타났다는지, 또는 '인간의 활동이 잠시라도 멈추니 자연계가 숨을 쉬게 되었다'라는 말, 또는 만능을 자랑하던 인간의 끝없는 욕망 속에 갇힌 인간의 한계가 그나마 솔직하게라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두운 파멸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라도 나타난 좋은 반면교사라고나 할까요?

이러한 돌이킴(悔心)이 바탕이 되고, 인간의 무능선언(無能宣言)과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원형복원(原形復原)을 그리워하게 되고, 더 나아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인간영혼의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공동체적 삶의

규범이 신앙 안에서 보다 이뤄져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아픈 위기와 상처를 모면해 가면서, 우리가 꿈꾸는 이상향(理想郷)을 향해 갈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러한 '유토피아'(Utopia)는 말 그대로 '없는 현실'(No Place)에 지나지 않으니... 이 또한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마음 아프고 유스감른 일이라는 하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인류가 이미 만들어놓고 뒤늦게 통탄해 하는... 거대한 정신적 퇴폐성의 쓰나미라는 오염으로 인한 총체적 파국을 면할 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시대를 향한 경각심에 무감각해지면서 창조주의 의도를 따라 영혼의 아름다운 가치를 향하는 영적순례를 포기하거나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그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요! 하늘을 향한 삶의 총체와 우주관을 저버리면서, 강단에서의 외침이 한낱 언사(言辭)의 화려한 미사여구만으로 허공을 치는 것으로 되어버린다는 것은 그 얼마나 비관적인지요!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할 '예수중심의 작은

마음 공동체'는 온데 간데 사라져가고, 우리가 꿈꾸는 종교적 이상이 세속사회의 법과 제도에 의해 직설당하거나, 이미 마음속에 가득한 세속성의 비대함으로 다만 거대한 담론으로만 끝날 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험과 효능을 상실당하는 처지의 빈약한 종교로 전락되고 있다는 것은 그 얼마나 마음아픈 일인지! 더 나아가 종교성의 회복을 위해 수많은 방법을 세우더라도 현대사회가 그 모든 나아가는 길을 거절함으로 인해 끝없는 우회로를 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러한 현실이 그 얼마나 서글픈 일이며, 또한 비극일 뿐인지요!

그래도 단 한 가지만이라도 희망하건대나 희망을 그려보라고 한다면... 현대인들이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려보는 모든 무익한 욕망을 철저히 부서뜨리거나 줄여가면서, 예수께서 베풀어놓으신 산상수훈의 도(道)를 속 깊게 이해하면서 그 속에 담긴 진정한 '복있는 자'의 개념을 향해 나아가는 것 외에는 그 어떤 희망이 없다는 것이지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고 익히며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것이지만 그 자체로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과 명성을 향한 성공신화를 꿈꾸면서 화려한 외투를 옷 입고자 하는 자아를 과감하게 벗어내고, 부패한 마음속에 조용히 었던 크고 작은 자기중심의 왕국을 향한 온갖 욕망을 극히 왜소화하면서... 세속에 물들여가는 자신들을 향하여 '한없이 슬퍼하고', '스스로의 영적 빈곤'을 인식하여 고백하면서 '하늘의 의'에 목마르지만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함이 인생에게 내려진 복음의 최우선인자는 절박함이 그리스도인 된 최고의 미덕으로 자리 잡지만 한다면! 시시각각 다가오는 시련과 슬픈 현실에서도 낮아지기는 해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고난의 현실을 통해 주의 임재와 자비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탐심과 위선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이 몸과 마음속에 기생한다 해도,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순결함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새해를 열면서 희망을 더 말하라고 한다면... 비록 희미하다 해도 '함께 하나가 되어' 작은 빛을 내기라도 한다면! 그리고 비록 모자랄지라도 적은 맛을 내는 소금의 일부가 되어 그것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작은 공동체로서 '공동의 선'(善)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로 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비록 너무 뒤늦은 시점이긴 해도, 인류 속에 깃들어야 할 분명한 구원의 희망이 메시아 사상을 중심으로 한 교회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나 함께 부르는 고백의 노래가 되리라 한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는 감격 대신에 두려움과 눈물과 탄식이 여전히 우리 눈앞에서 머물러 있는 세상에서, 백신개발의 소식 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더 나아가 생명공학(bio-tech)이라는 찬란한 성과가 마치 인류에게 커다란 희망이 되는 듯한 착각으로 우리 귀를 번득거리게 만든다 해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세주의 낮게 임하신 그 하늘의 교훈을 분받아 여전히 순결함과

고귀함으로 하늘을 향한 목마름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만 있다면! 무슨 소원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희망이 단지 꿈에 불과하도록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은 그 얼마나 우리를 기만하는 것인지요!

비록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 듯한 모습에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받아들이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창조주의 손길 아래, 겸손과 순결과 용기와 결단으로 새로운 한 해를 희망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 옛날 지혜자가 고백했던 그 말씀들을 새삼 되새겨보면서 말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은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욥28장)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전5장)

뉴저지밀알선교단을 찾아서: 사역과 비전 소개

뉴저지밀알(단장 강원호 목사)의 역사는 1992년 6월 8일 미주 밀알선교단으로부터 시작한다. 1983년 장애인선교와 공부에 목적을 두고 미국에서 활동하던 시각장애 이재서 박사(현 세계밀알총재, 총신대학총장)가 1990년 렉커스대학원 사회복지정책으로 박사학위 과정 중 장애인선교를 위해 미국에 와있던 강원호 목사부부와 함께 1991년 11월 워싱턴밀알선교단을 설립하

고 1992년 6월 워싱턴밀알을 중심으로 미주밀알선교단을 조직했다. 미주밀알선교단은 1994년 7월 17일 뉴저지밀알선교단을 창단했으며 1997년 이상조 목사가 단장으로 사역하다가 2001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강원호 목사가 단장으로 섬기고 있다.

애학생과 봉사자들의 순서를 발표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인의 존재를 알리고 계몽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쿠버 밀알에서 500여명 정도가 매년 모인다. 아침저녁 예배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배울 뿐 아니라 간증과 특강, 의료서비스, 발 마사지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경험한다. 다른 지역 장애인들과 봉사자들을 만나는 기쁨도 있다.

3대 목적

뉴저지밀알선교단은 미주밀알선교단과 함께 3대 존재목적들을 공유하고 있다. 이 목적은 세계 어느 밀알선교단도 모두 함께 한다.

1. 전도: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 장애인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사회복지적 차원만 생각하지만 장애인도 예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밀알선교단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모든 활동은 성경적 가치관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들은 밀알이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임직원은 기독교인만이 자격이 있다.

2. 봉사: 장애인들은 예수님의 복음뿐 아니라 의식주 문제에서 어렵고 신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적인 차원의 도움과 특수교육, 차량 라이드 등 봉사가 필요하다. 특히 일자리, 정서적으로 외롭기 때문에 친구가 필요하다. 장애인들이 예배 자리에서, 친구 되는 자리에서, 일하는 자리에서 평등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3. 계몽: 이 일은 몇몇 소수만이 할 수 없고 대중운동으로 확대돼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세계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밀알은 장애인에 관한 내용을 교회나 사회에 바로 알리는 역할을 한다.

5대 목표

3대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5가지 목표들을 설정했으며 이 목표는 뉴저지밀알선교단의 고유 목표다.

1. 장애인 신학을 정립해 교

회, 신학교, 현장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한다.

2. 각 교회마다 장애인 목장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한다.

3. 세계 1000곳 이상에 장애인 선교를 위한 교회와 선교단

하도록 돕고 있다.

2. 화요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시-9시. 먼저 1시간 동안 직장에서 바로 오는 사람과 서로 친교를 위한 저녁식사를 한

4. 주일예배: 일반교회에 갈 수 없는 장애인들이나 장애인 선교에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매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일예배와 봉사를 한

3. 6월 나눔음악회: 뉴저지



전도, 봉사, 계몽 목적으로 5대 목표 세우고 사역 전개 주별 월별 사역다양... 지역 넘어 세계장애인선교도 실천

을 세운다.

4. 장애인 사역자와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장학금을 확대한다.

5. 밀알동산을 세운다.

매주 사역 현황

1. 토요사랑의 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3시 5세 이상의 장애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된다. 2009년 9월에 시작된 이후 90명 이상의 장애아동과 봉사자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찬양을 가르쳐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교육적, 사회적 발달을 향상

다. 식사 후 찬양과 말씀을 전한 후 중보기도반, 수화찬양반, 장애아동반을 40분 정도하고 마지막에 워십댄스로 마무리한다. 매주 40여명 정도가 모이는데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3. 방과후 학교: 매일 오후 3시30분-6시. 비장애학생들은 학원도 가고, 운동도 가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만 장애학생들은 학교가 끝나도 갈 곳이 별로 없다. 방과후 학교는 장애학생 뿐 아니라 그 부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봉사자와 장애학생 매일 평균 20명 정도가 모인다.

다. 학생봉사자들은 오전 10시에 와서 오후 2시까지 봉사한다. 장애학생들이 일반 교회에는 잘 적응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부모들은 그 학생들을 맡겨 놓고 다른 교회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 약 50명 정도가 예배하고 봉사하는데 일반교회를 마치고 봉사하러 오는 사람도 있다.

월별 사역 현황

1. 4월 장애인의 날 행사: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매년 한다. 보통 토요일 사랑의 교실 시간을 확대해 일반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동안 배운 장

나눔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수고하며 때론 연극공연을 한다. 모여지는 수익금은 밀알장애인 컴퓨터를 위해 사용한다. 매년 6월 마지막 주일 저녁에 열리며 200여명 정도가 모인다.

4. 7월 밀알사랑의 캠프: 장애인들의 신앙적인 성숙과 교육을 위해 27년 전 시작했다. 주님 말씀을 배우고 600명 이상이 모여 친교하며 3일 동안 천국잔치가 이뤄진다. 미동부는 뉴욕, 뉴저지, 필라, 시카고, 살럿, 애틀랜타, 리치몬드 밀알에서, 서부는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산호세, 시애틀, 밴

7. 10월 가을소풍: 장애인들과 가족, 봉사자, 후원자 등 200명 정도가 함께 한다.

8. 11월 추수감사절디너: 특별 강사를 초청해 풍성한 음식과 감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추수감사절이 지난 그 주 토요일 호텔을 빌려 400여명 정도가 모이는 일년에 한 번 갖는 기금모금 행사다. 2020년에 16회째 진행했다.

9. 12월 밀알송년의 밤: 매년 성탄절과 연말에 한국무역공사(KOTRA)에서 음식과 선물을 준비해 장애인들과 봉사자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격려하는 시간이다.

방글라데시 장애인 사역

뉴저지밀알선교단은 뉴저지 지역 장애인 뿐 아니라 세계장애인 선교를 위해 기도하던 중 방글라데시 조상회 선교사(청각언어장애)와 함께 수도 다카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통기 빈민가에 아가페 홈과 학교를 세웠다. 감미경 사모가 매년 2회 4개월씩 방문하고 홍두석 선교사와 함께 비전스쿨도 개설했다. 현재 장애인 40명 사역자 15명 정도가 사역하고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세미나 안내

1.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2. 70이레
3.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미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美, 전시법 동원 "화이자백신 1억회분 추가구매"

미국 정부가 미 제약회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1억회분을 추가 확보해 내년 7월 말까지 공급받기로 했다.



미 국방부는 23일 보도 자료를 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를 통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1억회분을 추가 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에 따라 화이자는 최소 7000만회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제공하고 7월 말까지 제공량이 1억회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에 확보한 화이자 백신과 미 제약회사 모더나 백신 등 긴급승인을 받은 백신 물량을 합치면 2억명이 맞을 수 있는 4억회분이다. 미 정부는 한국전쟁 당시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동원해 화이자에 백신 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화이자 백신은 16세 이상, 모더나 백신은 18세 이상이 맞을 수 있는데 백신 접종이 가능한 연령대의 미국인은 총 2억6000만명이다. 미 정부가 화이자 백신 4000만회분을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도 이번 합의에 포함됐다.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이번 추가 구매는 우리가 2021년 6월까지 원하는 미국인 모두에게 접종할 충분한 물량이라는 자신감을 미국 국민에 한층 심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미 정부는 DPA를 동원해 화이자의 백신 생산을 돕기로 했다고 WP는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전날 트럼프 행정부가 DPA를 동원해 화이자가 백신 제조에 필요한 9가지 특수제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가로 추가 구매 계약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강타한 '팬데믹 은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으로 실업과 퇴직이 증가했다. 이 같은 일자리 위기는 특히 고령층 노동자들에게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CNN 방송은 올봄에만 미국에서 22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진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령 노동자들의 재고용을 기업들이 꺼리고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올봄 미국에서 사라진 2200만개의 일자리 중 절반가량은 몇 달 지나지 않아 회복됐다. 하지만 대부분 청년층이 일자리에 복귀한 반면 높은 연령대의 노동자들은 팬데믹으로 인

한 조기 퇴직으로 영구 실업 상태에 놓였다. CNN은 "경제 회복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시장의 복구도 고르지 못하다"고 분석했다.

노동통계국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노동참여율(성인인구 중 노동인구비율)은 61.5%였다. 이는 경제성장이 멈추기 전인 지난 2월보다 1.9% 포인트 낮다. 은퇴자를 위한 사회보장 수당 조기신청도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폴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인 조지프 브릭스는 "젊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거의 완전히 회복됐다. 건강에 대한 위험이 고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 팬데믹으로 인해 대학 진학률이 낮아진 점 등이 청년층 일자리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반면 노년층 노동자와 여성의 일자리 회복세는 더디다. 지난 10월 약 83만명의 '과잉 퇴직자'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우한코로나' 알린 죄... "징역 4년"

올해 초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을 취재해 실상을 알린 시민기자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상하이 푸둥신구 인민법원은 28일 공중소란 혐의로 기소된 시민기자 장잔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홍콩자유언론이 보도했다. 전직 변호사인 장잔은 지난 2월 우한 지역을 취재해 당국이 전염병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산소마스크를 쓴 환자들이 병원 복도에 줄지어 모습과 사람들로 가득 찬 화장장 등을 찍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장잔과 함께 우한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을 취재한 시민기자들이 구금됐거나 실종된 상황에서 관련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장잔은 지난 5월쯤 더는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다. 이후 중국 당국은 장잔이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구류됐다고 밝혔다. 장잔의 재판은 공교롭게도 코로나19 기원을 조사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전문가그룹이 중국에 도착하기 몇 주 전에 이뤄졌다. 중국인권옹호 NGO의 레오란 연구원은 "중국 당국은 장잔의 케이스를 올해 초 우한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체제 인사들을 검박하는데 활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워치도 중국에 억류 중인 기자들을 모두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홍콩자유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장잔을 포함해 우한 실상을 보도한 시민기자 4명을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여섯째 인을 열 때 일어난 일(계6:12-17)찬167장

구속완성의 상징인 여섯째 인을 떼는 행위가 나타날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첫째, 큰 지진과 검은 태양과 피 빛 모양의 달,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졌습니다(12-13). 앞서 말한 심판이 점점 더 심하게 나타남은 죄에 대한 세상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진노 앞에 깊은 회개와 믿음이 요구됩니다. 둘째, 하늘은 두루마리 말린 것 같고 산과 섬들이 옮겨졌습니다(14). 전체의 변화

는 하늘과 땅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으로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 역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심을 보여줍니다. 셋째, 각 나라의 왕, 장군, 부자, 강자 그리고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어린양의 진노가 너무 두려워 차라리 죽기를 구했습니다(15-16). 이 큰 심판의 날에 보호와 구원을 받을 우리는 그 어린양의 구원을 찬양해야 합니다.

화 마지막 인을 열 때 일어난 일(계6:1-5)찬461장

사도가 받은 계시는 반복적이며 점진적인 형태로 나옵니다. 일곱째 인을 열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첫째, 일곱째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 습니다(1-2).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별개의 심판이기보다 다른 상징주의를 사용함으로 심판의 중대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습니 다. 성도의 기도가 향

연으로 표현돼 하나님의 보좌에 드러진 것입니다. 종말의 심판은 성도의 진실된 기도와 함께 자신의 뜻대로 심판하심을 보여줍니다. 셋째, 천사가 그 향로를 땅에 쏟았습니다. 그때 우뢰, 번개, 지진이 생겼습니 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 시는 일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한 구원과 심판으로 일어납니 다. 성도는 바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온 세상에 나타내어야 합니다.

수 첫째 나팔의 결과(계6:6-7)찬34장

첫째 인을 열 때 북음운동의 승리가 일어난 것과 달리 여기서는 심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 나팔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첫째,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집니다. 이런 용어들은 모두 심판의 두려움을 알리는 일입니다. 둘째, 땅 삼분지 일이 타버립니다. 피조

물의 발판인 땅이 파괴되는 일은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알리는 일입니다.

셋째, 수목 삼분지 일과 푸른 풀이 불에 타버렸 습니다. 일반은총으로 주어진 모든 자연물이 죄로 인해 파멸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들어나게 하 습니다. 우리 시대에 전무한 재난을 당할 때 우리 는 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목 둘째 나팔의 결과(계6:8-9)찬228장

두 번째 부는 나팔이 보인 심판은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이것 역시 종말 심판의 두려움을 보인 것 입니다. 첫 번째보다 더 극심합니다. 둘째, 바다의 삼분지 일이 피가 됩니다. 나일 강을 피로 바꾼 재앙보다 더 큰 두려움이 생기는 현상이 일 어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이 의를 세웁니다. 셋째, 그리고 피조물의 삼분지

일이 죽고, 바다 위의 배 삼분지 일이 부서집니다. 자연계나 문화계의 모든 것이 그의 진노아 래 파멸되어 버림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심판을 분명히 들어내신 것입니다. 종말 시대에 일어날 심판은 이처럼 가공할 만한 것 입니다. 문자적이기 보다 그 실재가 아주 구체 적이고 심각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 을 두려워하며 회개합니다.

금 셋째 나팔의 결과(계6:10-11)찬394장

셋째 인과 관계된 셋째 나팔재앙은 어떤 심판 을 보여줍니까? 첫째, 큰 별이 땅에 떨어져 물의 근원이 큰 피해를 당합니다. 그 별을 가리켜 쓴 맛을 내는 썩이라고 불렀습니 다. 죄에 대한 하나님 의 심판은 모든 근원을 멸하는 두려운 것입니 다. 둘째, 물이 쓰게 됨으로 생존의 위협을 당하 는 원인이 됐습니 다(10). 종말시대의 심판은 이 처럼 세상의 자연적 고통을 넘어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하는 두려운 것입니다. 셋째, 그 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11). 그 심판은 죄인들의 사망을 가져오는 최대의 저주 속에 떨어지게 합 니다. 이것은 셋째 인이 열릴 때 보인 흉년의 고통보다 더 발전된 것입니다. 생존의 근본인 물에 큰 재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오아시스인 그리스도만이 생수의 근원임을 믿고 그 분께 피합니다.

토 넷째 나팔의 결과(계6:12-13)찬370장

점점 더해가는 심판은 어떻게 나타났습니 까? 첫째, 해 달 별들의 삼분지 일이 타격을 받 아 낮과 밤 삼분지 일이 어두워지는 흑암재앙 이 일어났습니 다. 전능하신 심판자 하나님이 하시는 징벌은 애굽의 흑암재앙을 능가하는 전 무한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창조전의 흑암의 상태보다 더 심각한 지옥의 흑암입니 다. 둘째, 독수리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임할 세 가지 화를 경고합니다. 이 세 화는 이 땅에 임

할 남은 작정된 심판의 재앙을 가리킵니다. 넷째 인에 전 쟁과 흉년이 화합된 고통이 온 것처럼 모든 활동의 원천에 타격이 가해져 빛이 어 두움으로 바뀌어지는 극한상황이 생깁니다. 이것은 종말에 일어날 전무한 절대재앙이 불신자 에게 임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환 난의 때를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이길 수 있 습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신년 축하 광고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41:13

TVNEXT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
- 올바른 정체성 정립
- 올바른 세계관 정립
- 올바른 가치관 정립
- 기독교 사회문화 형성

공동대표: 김태오 목사/새라김 사모
http://tvnext.org
tvnext.org@gmail.com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714)521-4636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1645 Beverly Bl,
L.A., CA 90026

Tel. (213)481-2779
Fax.(213)481-3761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Tel. (516)520-2004
www.nygethseme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욱

12-25 Clintonville St,
Whitheston NY11357

Tel. (718)361-9199
Fax.(718)361-943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295-7987
Fax.(516)883-1961

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 라홍채

39-5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Tel. (718)224-1993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Tel.(213)559-7728(전화 팩스 겸용)
Tel.(213)210-6890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7635 Dean Martin Rd
La Vegas NV 89139

Tel. (702)749-9929
Fax. (702)478-7224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Tel. (917)862-0523
Fax.(718)961-3631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610)222-0691
Fax.(610)222-0692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213)380-9377
Tel.(213)380-9079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410)461-6823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중운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빛과소금의교회
담임목사: 장요셉

1864 Precinct Line Rd,
Hurst, TX 76054

Tel. (817)427-1020
Fax.(817)427-0110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Tel. (718)265-2584
www.fkcb.org

빛과 소금의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Tel.(310)749-0577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

Cell.(704)877-6642
Tel.(704)529-0900

세계적인 기독교 이단대책
회장: 김순관 목사

Tel.(808)542-2922
www.ikccah.org

성화장로교회
담임목사: 이동진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 (310)515-1191
www.sunghwachurch.org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Tel.(206)527-0981
Fax.(206)524-1746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907)344-6446, Fax.
(907)344-3182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703)941-4447
Fax.(703)941-4448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Tel. (804)560-7500
Fax.(804)560-751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el. (213)749-4500
Fax.(213)749-6700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Tel.(253)536-6675
www.tacomacrc.com

필라한인연합교회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3416 W. 1st St,
L.A., CA 90004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Tel.(808)585-1859